VOL 91

HELLO NEXEN
MAGAZINE

2023 SPRING

GRAVITY

삶의 중심에서 보는 세상, 나의 우주 넥센

WE GOT YOU,
MY NEXEN UNIVERSE

헬로 넥센

GRAVITY

중력 덕분에
광활한 우주로 날아가지 않고
지구에 발을 딛은 채
살아왔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
문득 물음이 피어난다.
망망대해 같은 인생에서
미아가 되지 않고 살아가려면
삶의 '중심'에 무엇을 두어야 하는가.
가족, 일, 친구 등의 고마운 존재들은
우리 주변을 맴도는 이웃 행성으로 두고
내 자체로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도록
안으로부터의 중력이 필요하다.
꿈도 웃음도 행복도 끌어들일 수 있는
긍정의 중력말이다.

www.nexentire.com

HELLO NEXEN MAGAZINE

2023
SPRING

VOL 91

SPECIAL THEME : GRAVITY

6	**오프닝**	온종일 내 곁을 맴돌아! 우리는 중력 대신 '이것'에 끌리고 있다
8	**과학 에세이**	우리를 있게 해준 중력의 소중함의 대하여
12	**일상을 깨우는 여행**	다 같이 돌자 동네, 아니 서울 한 바퀴 '한양도성'
18	**넥센인의 pick**	중력을 향해 던지는 심히 엉뚱한 질문들

STATION 1

22	**ISSUE 1**	RE:NEW '2023년 시무식 개최'
24	**ISSUE 2**	넥센타이어 유럽공장 2단계 제1호 타이어 생산
26	**ISSUE 3**	넥센타이어, 제 65기 정기 주주총회 개최
28	**ISSUE 4**	'넥센 윈가드 스노보드팀' 아카데미 성료
30	**ISSUE 5**	2023 시즌 새롭게 시작하는 넥센타이어 모터스포츠
34	**ISSUE 6**	넥센타이어, 임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실시
36	**ISSUE 7**	장기 근속 임직원 해외 여행 포상
38	**ISSUE 8**	퇴근 후 화가로 변신한 넥센인! '사내 원데이클래스'
42	**TIRE TECH**	타이어테크 태평로점

STATION 2

48	**오늘도 해피타임!**	노는 게 제일 좋아 친구들 모여라~ 꽝없는 추억의 뽑기 이벤트!
52	**우리 가족 DIY**	자투리 가죽의 가치 있는 재탄생, 봄나들이 텀블러백으로 체인지
56	**NEXEN CSR**	차별과 편견을 없애는 다문화 인형 '소중이' 만들기

STATION 3

60	**컬처 가이드**	잠자고 있던 영감을 깨워볼까요?
64	**미래참견시점**	모빌리티가 꿈꾸는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68	**핫템 모아보기**	일상을 큐레이팅하다! 구독 전성시대
72	**365 건강백서**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꽃잎이?! 또 다시 찾아온 알레르기 비상
76	**오피스 솔루션**	MBTI 맞춤형 고민상담소 극과 극! 오해하지 맙시다!
80	**NEWS**	
82	**함께해요**	

헬로우 넥센

정보간행물
신고번호 양산, 바00008
신고일자 2016년 9월 29일
발행인 강호찬
발행일 2023년 4월 4일
발행처 경남 양산시
충렬로 355 넥센타이어(주)
담당 문화혁신팀
기획 및 출판 (주)대통기획
02-2269-3613
ISSN 2765-2904

친환경 환경부
헬로우 넥센은 환경부가 인증한 친환경 재생용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쓰인 글과 사진은 작가의 의견에 따른 것으로 넥센타이어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책에 쓰인 글과 사진을 재사용하려면 〈헬로우 넥센〉과 저작권자 양측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SPECIAL THEME

오프닝

과학 에세이

일상을 깨우는 여행

넥센인의 pick

VOL 91

2023
SPRING

GRAVITY

저 먼 우주로 날아가 버리지 않도록 인류를 강하게
잡아 두는 중력처럼 사소한 일상 속에서도,
삶의 중요한 순간에도 우리를 버티게 해주는 것들이 있다.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보다 더 강한 힘으로
지탱해주는 고마운 존재들 말이다.
실패를 견디게 해주는 따뜻한 가족의 품,
내일을 살게 하는 오늘의 땀방울, 있는 그 자체의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자존감... 길을 잃지 않고 다시금 걸음을
옮기게 해주는 인생의 중력들을 발견할 수 있는,
찬란한 봄날을 맞이해보자.

온종일 내 곁을 맴돌아! 우리는

‘슬램덩크’에 빠진 지 두 달째

조던화를 사고 슬램덩크 폰케이스를 사고 결국 농구공까지 사버렸습니다. 이제는 슬램덩크에 나오는 모든 캐릭터에 빠져버렸습니다. 분량도 적은 백호군단의 양호열 덕질까지! 3월 10일은 우리 호열 군의 생일이었습니다. 양호열 생일 축하한다!!! 이 세상에 양호열 같은 친구 하나만 둬도 남부러울 거 없는 인생이라 생각 듭니다. 슬램덩크 파이팅!

김지원

늘 보고 싶은 ‘나의 주니어’

밥은 잘 먹고 다니나?
어린이집에서 친구들하고
싸우지 않고 지내나?
이번 주에 만나면 같이 어디로
갈까? 근무지로 인해 가족과
떨어져 주말 부부로 살면서
늘 아이에 대한 걱정과 주말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진석

나의 유튜브 스타 ‘차청일’

요즘 유튜브 스타에게 끌리고 있는데요.
제 맘을 사로잡은 유튜버는 차청일이에요.
화려한 춤사위와 뻔뻔한 연기력, 영상을 만드는
재치까지! 삼박자가 모두 들어맞았네요.
아마 숏츠에서 많이 접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오늘은 그가 자주 쓰는 BGM인
向天再借五百年을 들으면서 퇴근해야겠어요.

김소희

봄 시즌 유쾌한 ‘배스 낚시’

요즘 중력보다 끌리는 배스 낚시. 겨울잠을 끝내고 왕성한 먹이 활동을 시작한 배스를 만나는 일은 중력을 이겨내는 것만큼 에너제틱하고 설레며 유쾌한 일입니다.

유상효

바쁘게 걸음을 옮기는 출·퇴근길에도, 늦은 밤 잠을 청하며 누울 때도,
멍하니 앉아 있다 가도 문득문득 떠오르는 무엇! 주변을 맴도는 그 설렘 덕분에
하루의 에너지가 달라진다. 중력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24시간 넥센인들의 머릿속과 마음을 사로잡은
'유쾌한 끌림'을 들춰보자.

중력 대신 '이것'에 끌리고 있다

진짜 나의 첫사랑 '뉴진스'

해린의 율동은 중독성이 강해요. 뉴진스 노래 'Hype boy' 중에서 Cause I know what you like boy you're my chemical hype boy 부분의 춤이 계속 생각나서 큰일입니다. 숏츠를 통해서 챌린지도 계속 보게 되네요. 뉴진스는 현재 대세입니다! 꺾이지 않아요~

송계주

내 마음은 너에게 우리집 '노견 레오'

유기견인 레오를 데려와 함께 산 지도 올해로 9년 차인데요. 처음에 데리고 왔을 때 병원에서 이빨의 형태를 보고 7살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지금은 어금니와 송곳니 빼고 거의 다 빠져버렸지만 저한테는 여전히 귀여운 아기 같아요. 한 가정집에서 10년을 살면 다음 생에 사람으로 환생한다는 할머니 말을 듣고 매일 밤 레오 귀에 꼭 다음 생에 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 달라고 말합니다. 온종일 내 곁을 맴도는 레오야 사랑해~

이다혜

요즘 나를 이끄는 건 '뭐니 뭐니 해도 빵'

세상에는 맛있는 빵이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덕분에 다이어트는 항상 작심삼일로 실패하지만 그래도 디저트 먹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요. 맛있는 빵을 파는 다양한 베이커리나 카페를 찾아다니다가 요즘엔 직접 빵이나 쿠키를 만들어보고 싶어서 열심히 유튜브도 찾아보고, 베이킹 클래스도 알아보고 있어요! 나중에 베이킹의 신이 되면 제가 좋아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맛있는 것을 나눠주고 싶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머랭질을 쳐봅니다.

강혜린

여가의 품격을 올려준 나의 '오토바이'

이제 2년이 넘은 나의 애마! 육중함과 스타일리시한 라인을 자랑하죠. 아름다운 봄꽃 길을 여유롭게 달리고 싶은 마음이 계속 떠나질 않네요. 인생을 제대로 즐기고 싶다면 '오토바이'죠. 한번 이 매력에 빠지면 끌림이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정우영

일상은 고운 자태를 지닌 열대어 '베타'로부터

저도 본격적으로 물 생활에 빠져들었습니다. 한 마리 한 마리 형형색색 다채로운 빛깔! 어느 것 하나 같은 모습이 없으며, 적개심으로 공동생활이 되지 않는 도도함까지 매력적이에요. 매일 환수지옥이지만 보고 있으면 참으로 행복합니다.

박인혁

글, 지웅배 연세대 은하진화센터 연구원

지구에 생명이 탄생할 수 있게 해준 행운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는가? 지구에게 에너지를 비춰주고 있는 태양, 그리고 그 태양에서 지구가 너무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다는 행운 정도가 생각날 것이다. 그에 비해서 지구 곁에 달이 있다는 사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놀랍게도 오늘날의 지구가 존재할 수 있는 건 달의 중력 덕분이다.

우리를 있게 해준 중력의 소중함에 대하여



GRAVITY

바다 생물을 뭍으로 끌어낸 달

달은 지구의 반의반, 4분의 1 정도 사이즈다. 목성이나 토성 등 지구보다 훨씬 더 거대한 행성이 우리 달에 비해 더 작은 크기의 돌멩이들을 위성으로 거느리고 있는 것을 생각해본다면, 지구는 사실 자신의 덩치에 비해서 꽤 부담스러운 자연 위성을 하나 거느리고 있는 셈이다. 지구와 달 사이 거리는 약 38만km 정도. KTX가 최고 속도로 쉬지 않고 지구에서 달까지 간다고 하면 약 50일 정도 걸리는 거리다.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천체 하면 떠오르는 게 달이지만, 흥미롭게도 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태양계 일곱 행성이 지구와 달 사이에 쏙 들어온다. 이처럼 지구와 달은 실제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두 천체가 주고받는 중력은 아주 효과적이다. 특히 우리가 매일 달에 의한 중력을 체감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바닷가에서 만나는 밀물과 썰물, 조석 현상이다.

밀물과 썰물, 조석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지구와 달이 점이 아니라 부피를 갖고 있는 물체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평소 지구와 달의 움직임을 간단하게 묘사하기 위해서, 두 천체를 질량이 모두 모여 있는 점 질량으로 간주하고 기술할 때가 많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두 천체 모두 큰 덩치, 부피를 갖고 있다. 그래서 지구의 각 부분에서 느끼는 달에 의한 중력은 조금씩 그 세기가 다르다. 달을 향하고 있는 쪽의 지구에서 느끼는 달의 중력이, 달을 등지고 있는 지구 반대편에서 느끼는 달의 중력보다 더 강하다. 이처럼 각 부위별로 느끼는 중력이 달라지는 효과를 차등중력이라고 한다.

단단한 땅에 비해서 바다는 달의 중력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렇게 달에 의한 차등중력으로 밀물과 썰물이 반복되면서, 해안가에서는 바다와 육지를 이어주는 중간 단계인 갯벌이 형성된다. 지금으로부터 약 4억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구의 동물들은 대부분 바닷속에서만 살고 있었다. 그런데 바닷가 근처에 살던 일부 생물들은 밀물과 썰물을 만나면서, 우연히 바닷물이 모두 빠져나간 갯벌 위에 노출되기 시작했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아가미가 아닌 폐로 호흡을 하는데 성공한 개체들은 갯벌 위에서도 고스란히 생존해 계속 후손을 남기게 된 것이다. 갯벌을 통해 바닷속에 갇혀 있던 지구의 생명들이 육지로 올라오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달은 마치 인어공주에게 다리를 만들어주었던 동화 속 마녀와 같은 역할을 했던 셈이다.



달이 있기에 가능한 지구의 계절 변화

지구에 이런 거대한 달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는 수십 억 년 전 화성 정도 크기의 테이아라는 천체가 어린 지구와 큰 충돌을 했기 때문이다. 그때 생긴 파편이 지구 주변을 맴돌며 다시 뭉쳤고 그것이 달이 되었다고 추측한다. 이 충돌은 지구의 자전축이 약 23도가량 기울어지도록 만들었다. 자전축이 비스듬하게 기울어진 덕분에, 지구의 각 지역에서는 위도에 따라서 시기별로 태양 빛이 들어오는 양이 달라졌고, 각 지역에서는 계절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거대한 달이 지구 주변을 돌면서, 강한 중력으로 지구를 붙잡고 있는 덕분에 큰 충격을 겪은 후에도 지구의 자전축이 크게 요동치지 않고 계속 일정한 각도로 기울어져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사실 지구의 자전축도 약 26,000년을 주기로 아주 느리게 방향이 변화하는 세차 운동을 하며 조금씩 방향이 바뀌고 있다. 그런데 만약 육중한 달이 지구 곁에서 붙잡고 있지 않았다면, 큰 충돌을 겪은 지구는 심하게 요동쳤을 것이며 지금보다 더 극단적이고 불안정한 계절 변화로 생태계 조성이 어려웠을 수 있다. 단 한 끗 차이로, 달을 만들어준 대충돌은 지구에게 절멸이 아닌 생명을 안겨준 셈이다.

인류의 과학도 결국 달 덕분에 가능했다

물리학자 아이작 뉴턴은 머리 위로 떨어진 사과를 보며 궁금증이 생겼다. 그는 '이렇게 작고 가벼운 사과도 지구의 중력에 의해 땅으로 떨어지는데, 하늘에 떠 있는 거대한 달은 어떻게 땅으로 떨어지지 않는 걸까?'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고민을 시작했다. 그리고 달이 지구의 중력에 붙잡혀 있지만 지구 주변을 둥글게 맴돌고 있기 때문에 땅으로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을 간파했다. 오늘날 우리는 뉴턴이 달을 보며 했던 이 고민 덕분에, 달이 지구 주변을 도는 것과 정확히 똑같은 원리로 수많은 인공위성을 띄울 수 있게 되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역시, 달이 있었기에 보다 더 빨리 인류 과학의 정설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 1915년 그는 질량에 의해 주변 시공간이 휘어질 수 있다는 상대성 이론을 주장했지만 시공간의 휘어짐은 너무 미미해서, 당시의 검출 기술로는 쉽게 파악할 수 없었다. 적어도 태양 정도의 육중한 질량 덩어리는 되어야 그 정도를 파악해볼만 했다. 아인슈타인의 가설에 따르면 태양은 육중한 질량으로 주변 시공간을 왜곡하고 있을 것이고, 그 왜곡된 시공간 주변을 날아오는 먼 별빛의 경로는 휘어져 들어오고 있을 것이다. 그는 이렇게 휘어진 시공간을 지나오는 별빛의 경로가 함께 휘어지면서, 하늘에서 별이 실제와 다른 자리에서 보일 수 있다는 중력 렌즈 현상을 예측했다.

하늘에서 태양 바로 옆에 있는 별을 본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때 천문학자 에딩턴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달에 의해 태양만 쏙 가려지는 개기일식을 활용하는 것이었다. 1919년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로 떠난, 에딩턴의 원정대는 각 장소에서 개기일식이 진행되는 동안 태양의 자리 주변에서 보이는 별들의 위치를 정확히 관측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예견한 대로 살짝 다른 위치에서 별이 목격되는 중력 렌즈 현상을 확인했다. 달이 있었기에, 인류는 이 소설같았던 상대성 이론을 보다 더 빨리 검증할 수 있었던 셈이다.

이렇게 작고 가벼운 사과도 지구의 중력에 의해 땅으로 떨어지는데, 하늘에 떠 있는 거대한 달은 어떻게 땅으로 떨어지지 않는 걸까?

GRAV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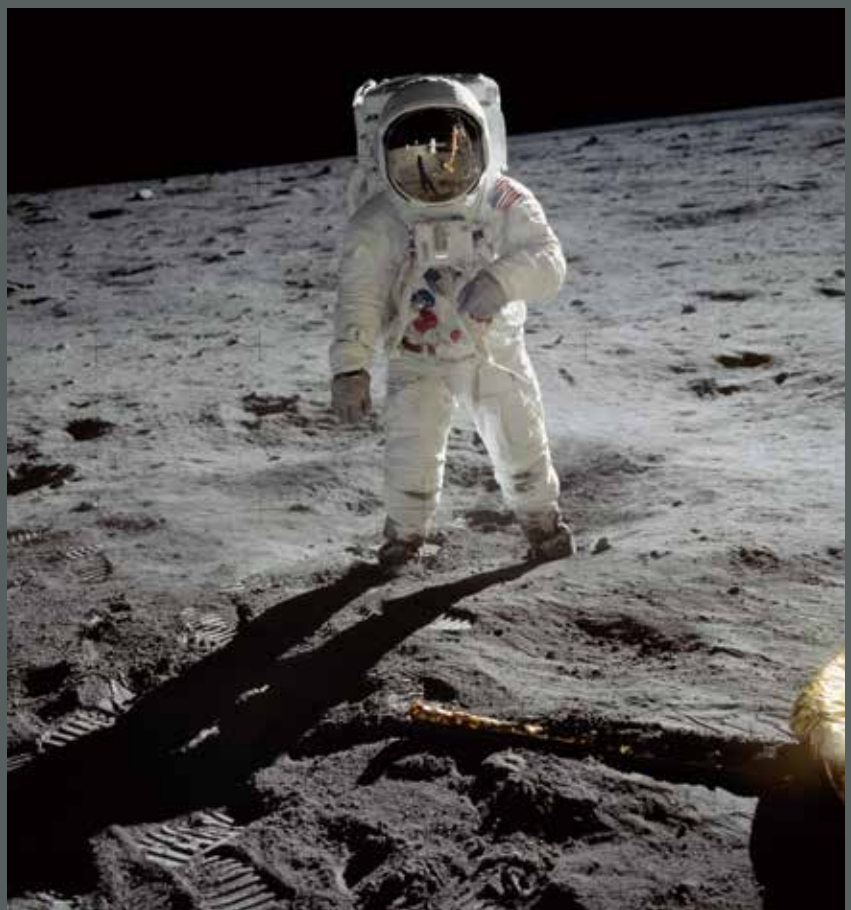
우주로 떠나고 싶게 만드는 자극제, 달

거대한 달은 인류에게 우주로 날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품게 만들어 주기도 했다. 늑대인간이 보름달을 보면 흥분하는 것처럼, 인류도 달을 보면서 우주로 떠나고자 하는 욕구를 품기 시작했다. 달은 인류가 한번쯤 여행을 해볼 만한 그나마 현실적인 거리에 떨어진 목적지였다. 쥘 베른의 〈달 세계로의 여행〉과 같은 작품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달로 날아가는 우주여행의 모습이 그려졌다. 그리고 비로소 인류는 1969년 아폴로 11호 미션을 통해 달에 발자국을 남기게 되었다.

달이 없었다면, 바다와 육지를 가득 채운 풍성한 생태계가 자리 잡기 어려웠을지 모르며 깜깜한 밤하늘 아래 놓인 인류는 지금보다 하늘에 덜 관심을 가졌을 것이다. 자연 위성에 대한 고민도, 사과를 얻어맞으며 달은 왜 하늘에 떠 있는지 궁금해한 뉴턴의 고민도, 달을 활용해 검증했던 우주 방사선과 상대성 이론의 역사도 아마 없었을지 모른다. 그리고 달이 없는 심심한 하늘 아래 우리는 우주로 날아가고자 하는 꿈 역시 꾸지 못했을 것이다.

최근 많은 천문학자들은 지구처럼 주변에 덩치 큰 위성을 거느리고 있어야, 그 행성에 생명이 진화하고 인류처럼 고등 문명으로 과학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란 고민도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단순히 다른 별 주변을 맴도는 외계행성만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외계행성 곁에 지구의 달과 같은 커다란 자연 위성도 함께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도도 이뤄지고 있다.

지구가 존재할 수 있게 해준 가장 특별한 우연은 오늘 밤 우리 하늘을 밝게 비춰줄 저 거대한 달의 존재가 아닐까? 수십 억 년 전 지구로 테이아가 다가오지 않았다면, 그 충돌로 날아간 파편들이 모여서 저 거대한 달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글, 사진. 정철훈(여행작가)

남산(목멱산) 구간
인왕산 구간
백악 구간

다 같이 돌자 동네, 양

숙정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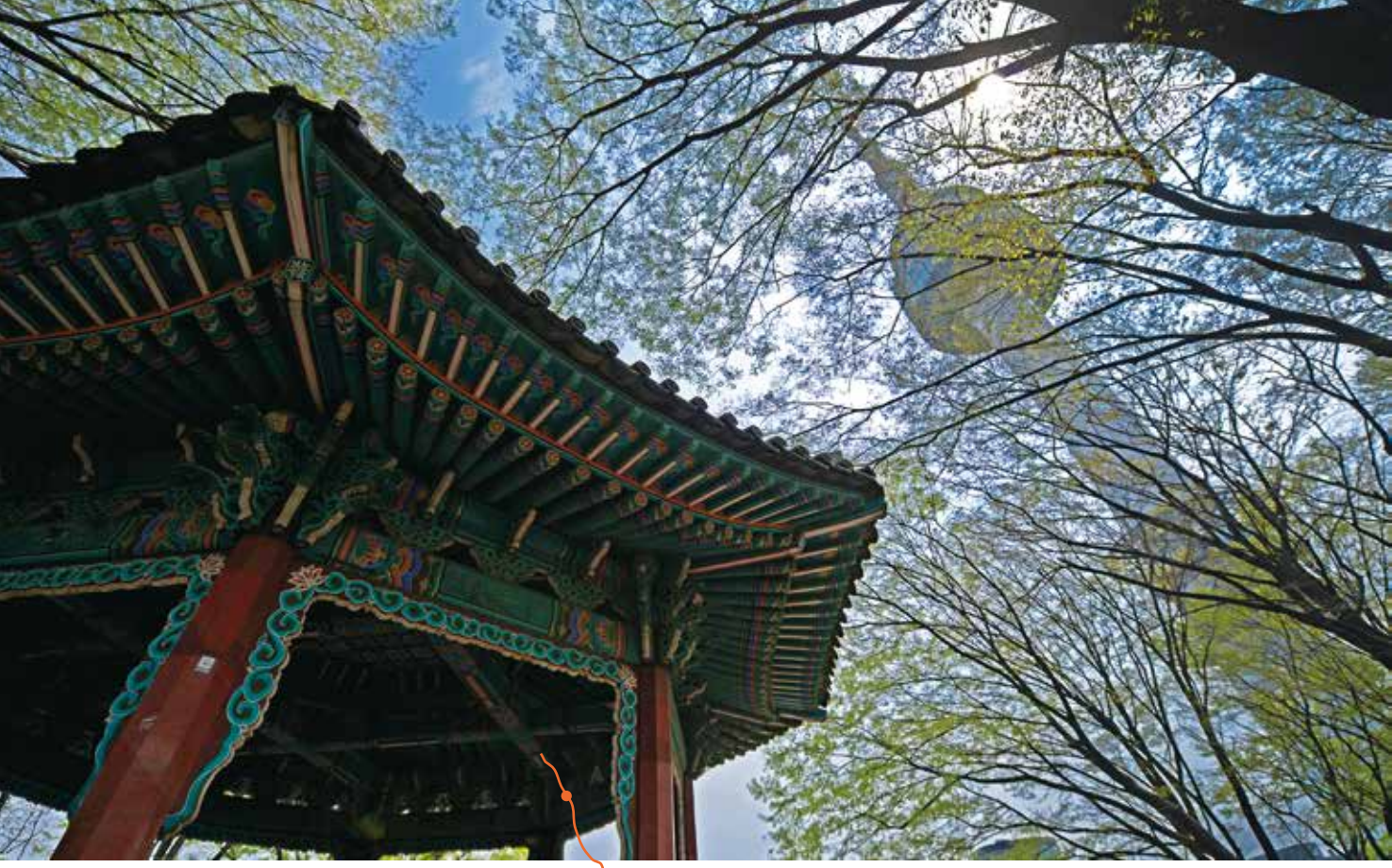
창의문

한양도성은 한양의 내사산(內四山), 그러니까 백악산, 남산, 인왕산, 낙산의 능선을 따라 축조됐다. 태조 5년(1396)에 축조한 한양도성은 1910년까지, 514년 동안 도성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오랜 시간이다. 한양도성을 따라 걷는 길은 우리네 유구한 역사를 온몸으로 마주하는 뜻깊은 여정이다.



아니 서울 한 바퀴

한양도성



팔각정과 남산N서울타워

남산(목멱산) 구간
구간 장충체육관 - 남소문 터 - 남산N서울타워 - 백범광장
거리 4.2km
소요시간 약 3시간 (도보)

서울의 안산, 남산을 거닐다

전체 18.6km의 한양도성은 백악·낙산·흥인지문·남산(목멱산)·숭례문·인왕산 등 모두 6개 코스로 구성됐다. 땀 꽤나 흘리며 산정까지 올라야 하는 코스가 있는가 하면, 산책하듯 도심을 따라 천천히 걷는 코스도 있다. 난도가 다양하니 여행자에겐 선택지가 그만큼 넓다. 그중, 가장 대중적인 코스는 단연 남산(목면산) 코스다.

우리 땅에서 남산처럼 흔한 이름의 산이 또 있을까 싶다. 전국 방방곡곡, 어느 동네에나 남산이라 부르는 산은 하나씩 꼭 있다. 남산은 그러니까 한라산이나 백두산 같은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에 가깝다. 남쪽에 있는 산. 서울의 남산도 마찬가지다. 해발 270m에 불과한 이 야트막한 산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건 조선이 개국하면서다. 한양으로 도읍을 옮긴 태조 이성계는 백악산과 남산을 각각 주산(主山)과 안산(案山)으로 삼고 백악산의 산신인 진국백과 남산의 산신인 목멱대왕에게 국가 차원에서 제사를 지내도록 했다. 주산이 뒤에서 받쳐주는 역할을 한다면, 안산은 바람을 막아 주거나 물이 치고 들어오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산이다. 한양도성이 백악산과 남산을 중심으로 서쪽의 인왕산, 동쪽의 낙산을 아우르는 모양새를 갖춘 이유다. 목멱산은 조선시대 통용되던 남산의 또 다른 이름. 목멱대왕에게 제사 지내던 남산의 국사당은 일제가 조선신궁을 건립하면서 헐려 인왕산 자락으로 옮겼다. 조선 태조 때 창건해 조선 말 고종에 이르기까지, 매년 봄가을로 국가적 차원의 제사가 열리던, 그래서 조선의 역사라 불리던 국사당 터는 이제 남산N서울타워 앞에 표석으로만 남았다.



국사당 터를 알리는 표석

한양도성 남산(목멱산) 코스는 백범광장과 장충체육관을 잇는 4.2km 코스다. 지하철 4호선 회현역을 빠져나와 5분쯤 걸어가면 백범광장이 모습을 드러낸다. 탁 트인 광장 한가운데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을 지낸 백범 김구선생의 동상이 당당한 모습으로 서있다. 김구선생 동상을 지나 만나는 세련된 건물은 안중근의사기념관이다. 안중근의사기념관은 서울특별시 건축상을 수상한 멋진 외관 못지않게 남다른 의미를 품었는데, 바로 국사당을 남산에서 쫓아낸 일제의 조선신궁 터에 세웠다는 것. 우리 민족의 정기를 끊기 위해 일제가 조성한 조선신궁 터에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안중근의사기념관이 들어선 건 분명 뜻깊은 일이다. 1970년 개관한 안중근의사기념관은 2010년 리모델링을 통해 지금의 모습으로 재개관했다.



안중근의사 동상

안중근의사기념관을 지나면 본격적인 남산(목멱산) 코스가 시작된다. 길은 꾸준히 오르막이지만 경사가 완만하고 계단이 설치돼 크게 힘들진 않다. 걷는 동안 든든하게 곁을 지키는 성곽도 아름답다. 봉수대, 팔각정, 남산N서울타워로 이어지는 예쁜 길만큼 정상에서 본 서울 풍경도 일품이다. 남산 정상에서의 서울 시내는 멀리 청와대와 백악산까지 한눈에 담긴다. 백범광장에서 남산 정상까지는 어른 걸음으로 1시간 정도면 충분하다. 내처 남산(목멱산) 코스를 종주할 셈이라면 정상에서 장충체육관 방면으로 길을 잡으면 되고, 여기까지 온 걸로 충분하다면 케이블카를 이용해 내려오면 된다. 선택은 각자의 몫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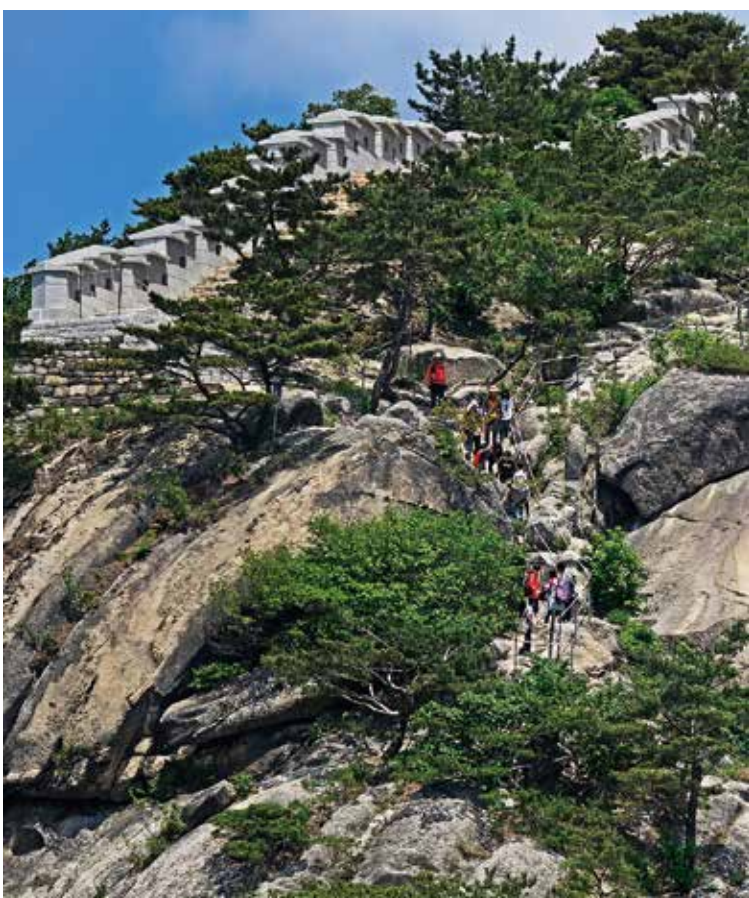
팔각정



백악산을 넘어 청와대까지

남산(목면산) 코스를 포함해 낙산·흥인지문·숭례문 코스가 누구나 편하게 걸을 수 있는 무던한 구간이라면, 인왕산과 백악산 코스는 적잖이 땀 뺄 각오를 하고 도전해야 하는 코스다. 코스 대부분이 가파른 산길로 이어진데다, 거리도 부쩍 늘어나기 때문. 체력에 따라 체감하는 난도는 다르겠지만 한양도성 홈페이지에 이 두 코스를 난도 '상'으로 분류한 만큼 만만하게 보고 발을 들였다간 큰 코 다치기 십상이다.

인왕산과 백악산 코스는 각각 4km와 4.7km다. 산 좀 타는 사람이라면 하루에 두 코스를 엮어 종주도 가능하겠지만, 산행 초보에겐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니다. 그럼 여기서 선택이 필요할 텐데, 어디가 좋을까. 서울의 안산인 남산을 걸었다면, 다음 코스는 자연스레 서울의 주산인 백악산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물론 이건 인왕산 코스가 걷는 맛이 덜하거나 풍경이 뒤처지기 때문이 아니다. 인왕산 코스는 앞서 언급한 남산에서 옮겨온 국사당과 무학대사가 기도처로 삼은 선바위 등 볼거리가 많을 뿐 아니라, 바위로 이뤄진 골산이다 보니 산 타는 재미도 백악산보다 한 수 위다. 풍경은 또 어떤가. 인왕산의 아름다움은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와 강희언의 〈인왕산도〉에서 이미 검증됐으니, 더 거론할 필요도 없다. 그럼에도 굳이 백악산 코스를 권하는 건, 전적으로 여행자의 입장을 고려한 선택이다.





국사당



선바위



창의문



1.21사태 소나무

백악산 코스는 4소문 가운데 하나인 창의문에서 출발해 숙정문과 와룡공원을 지나 혜화문까지 이어진다. 백악산 코스는 청와대가 개방되면서 접근이 한결 쉬워졌다. 신분증 검사와 인원 제한 등 까다로운 입산 절차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덕분에 산행과 청와대 관람을 연계할 수 있어 도보 여행자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말 그대로 꿩 먹고 알 먹고, 도랑 치고 가재 잡는 격이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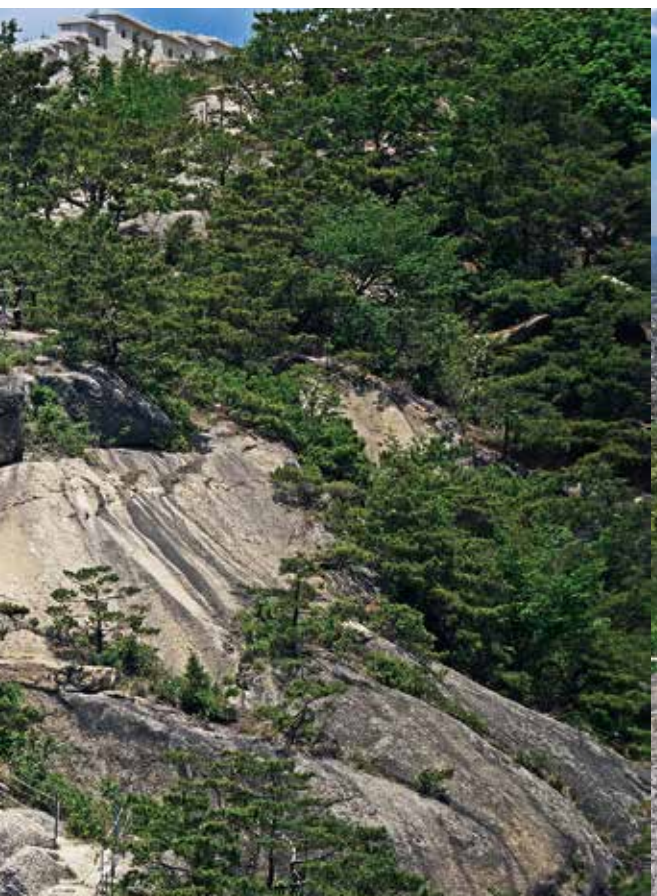
창의문에서 백악마루까지는 말 그대로 코가 무릎에 닿을 만큼 가파른 계단을 올라야 한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힘겹게 오른 계단 끝에 서면 서울을 서울답게 만드는 북한산이 눈앞에 병풍처럼 펼쳐진다. 들인 발품이 아깝지 않은 아름다운 풍경에 발걸음이 쉬이 떨어지지 않는다.

백악산 코스와 청와대 관람을 연계하려면 탄흔이 선명하게 남은 '1.21사태 소나무'를 지나 만나는 청운대 쉼터에서 청운대전망대 방향으로 길을 잡으면 된다. 청운대전망대에서 청와대 춘추관을 잇는 등산로는 오후 3시 이후 폐쇄되니 참고할 것. 청와대 관람을 위해서는 '청와대, 국민의 품으로' 홈페이지(https://reserve1.opencheongwadae.kr)를 통한 사전 예약은 필수다.

인왕산 구간

구간 돈의문 터 - 월암공원 - 인왕 곡성 - 인왕산 338m - 윤동주 시인의 언덕 - 창의문
거리 4.0km
소요시간 약 2시간 30분 (도보)

범바위



범바위에서 바라본 서울





녹지원

대통령이 머무는 청와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밀스런 공간이다. 그 청와대가 74년 만에 일반에 개방됐다. 청와대에는 대통령이 집무를 보던 본관, 대통령 가족이 머물던 관저 외에도 경무대가 있던 수궁 터, 보물로 지정된 미남불, 수령 150여 년의 한국산 반송 등 특별한 볼거리가 가득하다.

본관은 대통령의 집무와 외빈 접견을 위한 공간이다. 1991년에 전통 궁궐 양식으로 새로 지었다. 15만 여 개의 청기와를 올린 지붕이 인상적인데, 청와대라는 이름이 여기에서 유래했다. 대통령 집무실과 정상회담을 진행했던 접견실은 2층에, '무궁화실'이라 부르는 영부인 집무실은 1층에 있다.

관저는 청와대에서도 가장 비밀스러운 공간이다. 대통령 가족의 사적인 공간인 만큼 언론에 공개된 적도 거의 없다. 관저는 생활공간인 본채와 접견·행사를 위한 별채 그리고 뜰과 사랑채로 구성됐다. 관저 출입문과 본관 동문을 잇는 숲길 산책로를 따라가면 오운정과 미남불(보물)을 만날 수 있다. 관저 내부는 일반에 공개하지 않는다.

수궁 터는 조선시대 궁을 지키던 '수궁'이 있던 자리다. 일제가 수궁을 헐고 지은 총독 관저는 한때 '경무대'라 부르며 대한민국 대통령의 집무공간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정부는 1993년 11월,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경무대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수궁 터를 복원했다.

청와대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인 녹지원은 꼭 들러야 할 공간. 수령 150여 년의 한국산 반송을 중심으로 120여 종의 나무가 식재된 녹지원에서 역대 대통령의 기념식수를 찾아보는 것도 재밌다. 녹지원 옆 상춘재는 청와대를 방문하는 국빈에게 한국 전통 건축 양식을 소개하기 위해 지은 공간이다. 의전 행사나 비공식 회의장소로도 사용됐던 이곳은 본래 조선총독부 관사 별관인 매화실이 있던 곳으로 1982년 기존 건물을 헐고 지금의 모습으로 새로 지었다. 상춘재 건립에는 200년이 넘은 춘양목이 사용되었으며 내부는 거실과 온돌방 2개로 구성됐다.



백악 구간

구간 창의문 - 백악산 342m - 백악 곡성 - 숙정문 - 말바위 안내소 - 와룡공원 - 혜화문
거리 4.7km
소요시간 약 3시간 (도보)



미남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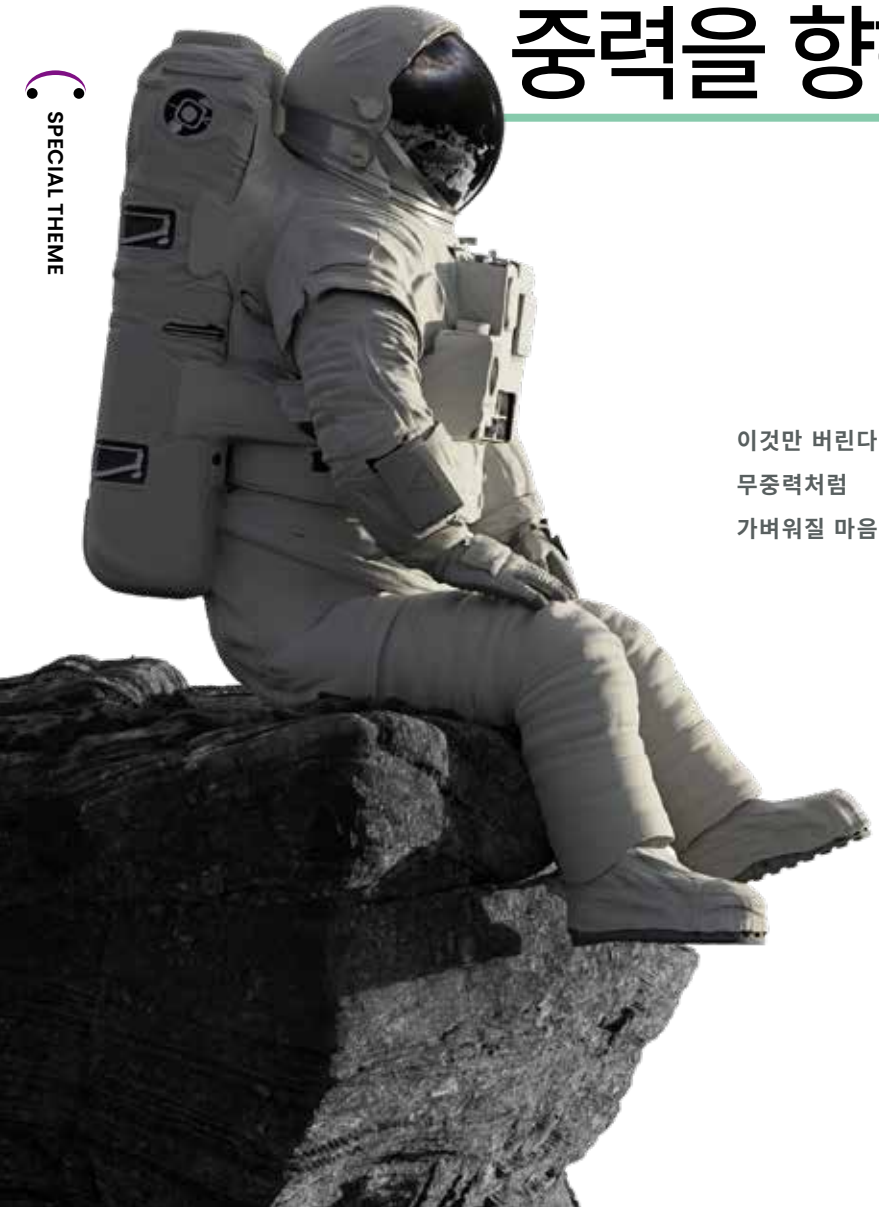
본관 로비

넥센인의 pick
정리. 편집실



중력을 향해 던지는

SPECIAL THEME



설문기간: 2023. 3. 14 ~ 3. 15 /
참여자 158명

중력을 조절해 시간을 왜곡한다면
느리게 하고 싶은 순간은?

늘어가는 주름, 노화의 시간

39.46%

노는 게 제일 좋아! 휴가나 데이트 **36.22%**
쑥쑥 커버린 아이들! 조금만 천천히 **11.35%**
발등에 떨어진 업무 데드라인 **7.57%**

기타 **5.41%**

↳ 아침 알람 후 10분 더 자고 싶을 때 - 김영두
지금 매 순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 김성훈
육아 전쟁 중 찜이 난 나만의 자유시간 - 서용준
나이에 맞는 능력치를 요구하는 순간까지의 시간 - 이연주

이것만 버린다면?
무중력처럼
가벼워질 마음의 무게

OO답게! 잘 해내야 한다는 책임의 무게

37.79%

잘못되면 어쩌지? 커져가는 걱정 인형 **30.81%**
왜 나만 뒤처져… 진땀나는 조급증 **14.53%**
나 때문인가? 소심함 폭발 중 **9.30%**

기타 **7.56%**

↳ '해서 뭐해'라는 허무주의적 마음 - 이명수
노력이나 가진 것 대비 과한 욕심 - 송민석
가끔은 직관과 감정에 움직여야 하는데, 그놈의 시뮬레이션 - 송강호
건강 걱정에 대한 무게 - 김상문





우주로부터
크리에이티브 넥센인을 위한
맞춤형 질문이 날아왔다.
중력, 그 무거운
주제를 가볍게 논하는
대범한 상상력을 펼칠 시간!
조금은 엉뚱한 물음에
답을 찾으며 일상의 환기를
불어 넣어보자.



심히 엉뚱한 질문들



중력파를 쏴서라도
가까이 두고 싶은 동료는?

티키타카!
딱 맞는 유머코드를 가진
영혼의 동반자

34.54%

- 알파고인가? 지적능력을 갖춘 AI급 능력자 25.26%
- 자신감에 펌프질해주는 따뜻한 칭찬봇 20.62%
- 무한 끄덕끄덕! 태평양 같은 공감능력의 소유자 13.92%
- 기타 5.67%
  - ↳ 만능봇! 모든 능력을 가진 동료가 필요합니다! - 김병갑
  - 맛있는 건 뭐든지 나눠주는 천사 - 이다혜
  - 잘잘못 보다 옳고 그름을 판단해주는 동조자 -유민

달나라 가기 전,
나만의 우주복!
특별한 기능을
넣는다면?

외계인과의
한판 승부!
히어로급 전투 기능

28.65%

- Music is my life! 최고급 음악감상실 21.35%
- 코지마도 울고 갈 전신 안마 기능 15.73%
- 말솜씨 끝판왕! 인공지능 스피커 14.61%
- 우주에서도 사진 포기 못해! 고화질 카메라 12.92%
- 기타 6.74%
  - ↳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무사귀환 버튼! - 김도연
  - 우주 곳곳을 돌아다닐 수 있는 순간 이동 - 노홍수

중력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다면,
이 스포츠의
챔피언으로!

공중에서 펼치는
화려한 기술,
날개 단 다이버

40%

- 어디까지 올라가? 맨손의 클라이머 20%
- 들리지 않는 무게! 범접불가 종합 격투기 파이터 17.42%
- 기타 11.61%
  - ↳ 세계 기록 단번에 주파! 장대 높이 뛰기 챔피언 - 전석호
  - 빌딩 숲 사이를 누비는 스카이라인의 지배자, 파쿠르 선수! - 김효석
  - 남사당놀이의 줄타기 - 조미오
  - 무중력 덩크슛 - 오동진
- 트리플? 파이브악셀도 가능한 피겨스케이팅 10.97%



STATION

VOL 91

2023
SPRING

넥센유니버스는 함께 나아가는 상생의 에너지와
미래 비전으로 가득한 곳이다. 유럽공장 2단계
제1호 타이어 생산이란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으며
스노보드 꿈나무들과 넥센 윈가드 선수단의 만남,
국내 최정상 레이싱 팀과 넥센타이어와의 시너지가
2023년 시즌의 문을 열었다. 장기 근속 임직원들의 노고를
축하하는 해외 포상 여행의 이야기도 함께 만나보자.

HELLO NEXEN MAGAZINE

ISSUE

TIRE TECH

STATION 1

글. 김희진 책임 문화혁신팀, 사진. 김정호

RE:NEW '2023년 시무식 개최'

지난 1월 2일 넥센중앙연구소인 '더넥센유니버시티'에서 2023년 시무식이 열렸다. 시무식 현장은 생중계를 통해 양산, 창녕 공장에도 진행됐다. 강호찬 부회장은 임직원에게 지난 한해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올 한해는 모든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 가는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2023년 키워드를 'RE:NEW(다시, 새롭게!)'로 정한다"고 밝혔다.

'리(RE)'는 '우리를 다시 되돌아보고 점검해 나가면서, 비효율적인 것은 제거하고 좋은 장점들은 계승하고 이어 나가자'는 것이며, '뉴(NEW)'는 '좋은 장점들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새로움을 만들어 나감으로써 새롭게 도약을 하자'는 뜻이다. 또한, 2022년 새롭게 신설된 '퍼플 어워즈' 시상식도 이날 함께 치뤄졌다. '퍼플 어워즈'는 핵심가치에 기반한 성공 사례를 발굴하는 Go, Best 부문과 실패하더라도 과감한 도전 그 자체를 응원하는 Try Again 부문으로 진행됐다. 새로운 다짐으로 시작한 2023년 시무식 현장으로 들어가보자.








Purple
Awards



글, 사진. 고용운 팀장 (유)인사총무팀

넥센타이어 유럽공장 2단계 제1호 타이어 생산

지난 3월 1일, 유럽공장 2단계 공장의 1호 타이어 생산을 축하하는 서명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강호찬 부회장, 이현종 사장 등 임직원이 참여해 1호 타이어 생산을 기념했다. 강호찬 부회장은 1호 타이어에 'Moving Forward with Innovation' 이라는 축하 메시지를 남겼다. 현재 활발히 진행 중인 2단계 증설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넥센타이어의 유럽공장이, 유럽을 넘어 글로벌 시장을 향한 전진기지로 우뚝 설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Moving Forward with Innovation



글. 김희진 책임 문화혁신팀

넥센타이어,
제 65기 정기 주주총회 개최







지난해 매출 2조 5,974억으로 사상 최대 실적 기록

넥센타이어가 3월 28일 오전 11시 경남 양산 본사에서 제 65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과 이익잉여금처분안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 등이 의결됐다. 이와 함께 액면가 500원 기준 1주당 보통주 100원, 우선주 105원을 결의해 현금배당을 확정했다. 넥센타이어의 2022년 연결기준 매출액은 전년 대비 약 25% 증가한 2조 5,974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 매출을 거두었으나, 글로벌 공급망 악화로 인한 물류비 급등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543억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지난해 넥센타이어는 대내외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우디와 BMW 등 프리미엄 완성차 업체로의 공급 확대를 이뤄내며 브랜드 가치를 높였다.

또한, 8년 연속 GM 우수 품질 공급업체 선정과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인 미국의 IDEA 및 독일의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수상, 그리고 국내외 레이싱 대회 포디움 입상 등 제품의 기술력과 품질의 우수성도 인정받았다. 이현종 사장은 주주총회 인사말을 통해 "올해도 프리미엄 카메이커로의 공급을 더욱 확대해 나가며, 변화하는 모빌리티 산업에 맞춘 차세대 타이어 개발, 그리고 탄소저감, 사회공헌 등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ESG 경영 실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며 회사의 지속 성장을 견인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 김희진 책임 문화혁신팀, 사진. 김정호

‘넥센 윈가드 스노보드팀’ 아카데미 성료

스노보드 월드컵 은메달리스트 이상호 선수 일일 코치로 나서

넥센타이어는 지난 2월 3일 ‘넥센 윈가드 스노보드팀’ 선수단과 함께하는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용평 리조트에서 열린 아카데미에는 박강철 넥센타이어 경영전략BG(Business Group)장, 이무헌 대한스키협회 수석부회장, 김진해 부회장, 넥센 윈가드 스노보드팀의 공식 서브 스폰서 RYSE 문윤회 대표, 넥센 윈가드 스노보드팀 선수단, 유소년·청소년 아카데미 참여자 및 가족이 함께했다. 박강철 BG장은 “앞으로도 스노보드 저변 확대뿐만 아니라 선수들이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넥센타이어는 지난해, 알파인 스노보드팀인 ‘넥센 윈가드 스노보드팀’을 창단하며 비인기 종목 및 동계 스포츠 저변 확대에 나섰다. 이상호 선수는 2021-2022 국제스키연맹(FIS) 알파인 스노보드 월드컵에서 종합 1위를 차지했다. 지난달에는 캐나다에서 열린 2022-2023 국제스키연맹(FIS) 스노보드 월드컵에서 2위를 기록했다. 홍승영 선수는 지난달 열린 제31회 동계유니버시아드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3위를 기록했다.





1



2

1, 2. '넥센 윈가드 스노보드팀'의 이상호, 홍승영, 권용휘 선수 및 현병준 코치가 일일 강사로 나서 스노보드 게이트 트레이닝, 원포인트 레슨 등을 진행했다.

3, 4. 선수 사인회와 Q&A 시간, 기념품 증정 등 다양한 이벤트도 이뤄졌다.



3



4

글, 사진. 김남희 책임 레이싱타이어개발팀



2023 시즌 새롭게 시작하는 넥센타이어 모터스포츠





넥센타이어 모터스포츠가 새롭게 단장을 마치고 2023 시즌의 막을 열었다. 먼저, 워크스 팀이었던 '엔페라 레이싱팀'은 지난 시즌을 마지막으로 이별하게 됐다. 넥센타이어는 '타이어 연구개발'과 '성능 육성'에 집중하고 있으며, 그간의 기술력이 축적된 레이싱 타이어를 국내 최정상 프로 레이싱 팀은 물론 더 많은 팀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든든한 파트너사로서 거듭나고자 한다. 2023년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대회 SUPER 6000 클래스에서 넥센타이어를 사용하게 되는 팀을 소개해본다.



도전의 아이콘, 서한 GP

서한 GP는 글로벌 자동차 부품 및 단조를 주력으로 하는 글로벌 회사인 서한 그룹에서 운영하는 프로 레이싱팀이다. 서한 GP는 많은 국내 모터스포츠 경기에 참가하고 있다. 2019년부터 SUPER 6000 클래스에 출전하였고 그 외에도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GT 클래스, 현대N 페스티벌에도 출전하며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2022 시즌부터 넥센타이어는 국내 최정상 프로팀인 서한 GP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레이싱 타이어를 공급하고 있다. 그리고 넥센타이어와 함께하는 두 번째 라운드에서 서한 GP는 무려 더블 포디움(2위, 3위)에 올라섰으며 6라운드에서는 마른 노면 전용 슬릭타이어(DRY)를 장착한 장현진 선수가 우승을 거머쥐기도 했다. 마지막 8라운드에서는 정회원 선수가 역전 드라마를 펼친 덕분에 예선 18위에서 시작해, 결선 3위로 유종의 미를 거두며 장현진 선수와 함께 더블 포디움(2위, 3위)을 달성했다. 서한 GP 소속인 장현진 선수는 2022 시즌 종합 3위라는 역대 개인 최고 성적을 기록하며 시즌을 마무리했다. 2023 시즌에도 넥센타이어와 함께하는 서한 GP 장현진(#06), 김중군(#05), 정회원(#07) 선수의 활약을 기대해 본다.

실력과 매력으로 가득 찬

새로운 팀들과 시작하는

넥센타이어의 국내 모터스포츠







국내 최대의 명문팀, CJ로지스틱스 레이싱팀

CJ로지스틱스 레이싱팀은 2008년 CJ그룹에서 출범한 프로 레이싱 팀인 CJ레이싱팀의 바통을 이어받아 국내 탑 드라이버들을 대거 양성한 15년 경력의 명문 프로 레이싱팀이다. 2017년 CJ로지스틱스 레이싱팀으로 팀명을 변경하여 현재까지 사용 중이다. 2008년 CJ레이싱팀 출범 이후 2009년, 2011년, 2012년, 2013년까지 SUPER 6000 클래스 종합우승을 4번씩이나 석권했다. 그야말로 명문팀 중에 명문팀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의 부진을 극복하고 2023 시즌부터 팀을 완벽하게 재정비하기 위해 오한솔 선수(#50)와, 박준서 선수(#36)를 영입하여 한해 다시 한번 도약하는 명문 레이싱팀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젊음의 포텐셜, 볼가스 모터스포츠팀

볼가스 모터스포츠팀은 2019년 창단한 젊고 잠재력 있는 프로 레이싱팀이다. 레이싱팀의 역사는 비록 짧지만 볼가스 모터스포츠팀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은 가히 대단하다. 볼가스 모터스포츠팀은 창단한 첫해에 김재현 선수가 종합 3위를 하였으며, 첫 개막전 출전에 준우승, 7라운드 우승, 9라운드 포디움에 오르며 첫해부터 매우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볼가스 모터스포츠팀은 매우 적극적이고 시원시원한 경기 스타일로 인해 슈퍼레이스 대회에서 이미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는 팀이다. 2022 시즌 종합 2위로 아쉽게 시즌을 마무리한 김재현 선수(#44)는 2023 시즌부터 넥센타이어와 함께하여 시즌 종합 우승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또한 2016년, 2020년 SUPER 6000 클래스 종합 챔피언인 정의철 선수(#04)까지 볼가스 모터스포츠팀에 합류하였기에 2023년 레이싱팀들에 있어 가장 위협적인 팀으로 평가받고 있다.











글. 김희진 책임 문화혁신팀, 사진. 김정호

넥센타이어, 임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실시

넥센타이어가 임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지난 3월 15일과 16일 양일간 실시했다. 넥센타이어는 최근 사회적으로 심폐소생술(CPR)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임직원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에 도움이 되고자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서울시 강서보건소와 함께 진행한 이번 응급처치 교육에서 넥센타이어 임직원들은 심폐소생술(CPR),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응급처치 방법 등 다양한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웠다. 임직원들은 교육 이수 후 심폐소생술 교육 수료증을 발급 받았다.

넥센타이어 관계자는 "이번 응급처치 교육을 통해, 임직원들이 일상생활 속 안전사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응급상황 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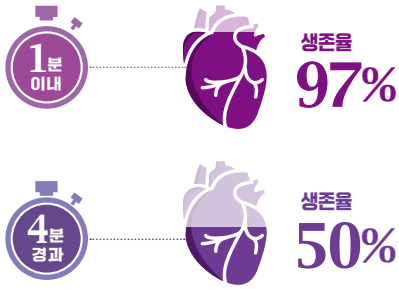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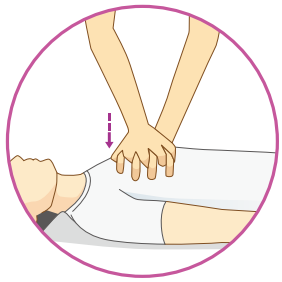

숫자로 보는 심폐소생술

심정지 발생 시 심폐소생술 시간별 생존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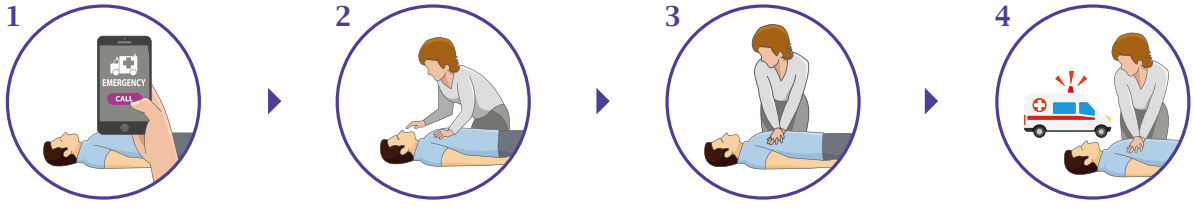


가슴 압박 방법

분당
100~120회 속도
소아는 약 5cm 압박



심폐소생술 순서



1. 어깨를 두드리며 '반응을 확인', 119 신고 및 '자동심장충격기' 요청
2. 호흡을 하는지 확인
3. 강하고 빠르게 '30회' 가슴 압박
4. 구급대원이 오기까지 반복

글, 사진. 송준우 수석 (YP)인사지원파트

장기 근속 임직원 해외 여행 포상

넥센타이어가 장기 근속 임직원들에게 그간의 노고에 격려를 보내는 의미로 가족 해외 여행을 포상했다. 넥센타이어는 매년 장기 근속자에게 해외 가족 여행을 선사해오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최근 3년간 진행해 오지 못했던 행사를 2023년도에 진행하게 되었다.

근속 20년
베트남 다낭







20년 장기 근속자는 베트남 다낭(4박 5일), 25년은 호주(6박 7일), 30년은 유럽 내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9박 10일) 일정을 소화하고 있으며, 각각 290여 명, 300여 명, 70여 명이 지난 1월부터 순차적으로 여행을 떠나 다가오는 6월까지 일정이 예정되어 있다.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임직원들이 가족들과 해외 여행을 하며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는 모습을 사진으로 만나보자.

근속 25년
호주





근속 30년
유럽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글. 편집실, 사진. 김정호

퇴근 후 화가로 변신한 넥센인! '사내 원데이클래스'

지난 3월 22일 마곡 근무 임직원을 대상으로 아크릴화 원데이클래스가 진행됐다. 일할 맛 나는 회사 만들기의 일환으로 퇴근 후 특별한 아카데미를 열게 된 것. '쎈트리 클래스(쎈Tri-Class)-하루만에 배워보삼'이란 타이틀로 시작한 이번 프로그램은 설문조사를 통해 직원들이 수강하고 싶은 클래스에 대한 의견을 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운영될 계획이다. 참가비나 외부 이동 없이 퇴근 이후, 바로 사내에서 출강으로 진행된다는 점이 참여의 접근성을 높였다.









2023년 쎈트리 클래스 첫 수업은 '아크릴화 그리기'였다. 학창 시절 이후, 오랜만에 붓과 물감을 접해보는 24명의 참여자들은 기분 좋은 낯섦에 빠져들었다. 참여자들은 준비된 도안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각자만의 스타일로 색을 칠하고 귀여운 요소를 더하며 캔버스를 채워 나갔다. 수업을 담당한 강사는 "다른 회사 직원에 비해 넥센인들의 그림은 같은 도안인데도 각자만의 개성이 뚜렷한 것 같아요. 창의적인 그림들이 눈에 띄네요"라며 수업 후기를 전했다. 90분 남짓한 시간 동안 완성한 작품 중, 우수작으로 선정된 10개의 작품은 작가명까지 달아서 3층 카페 앞에 전시됐다. 작은 갤러리로 변신한 일상적 공간에서 그림을 감상함으로써 넥센인들에게 색다른 힐링을 선물하고자 기획된 전시다. 향후 더 많은 임직원들이 다양한 클래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NEMO를 통해 정기적으로 수업 공지를 할 예정이다.









인사팀
김효석 사원

"평소 그림에 자신이 없어서 도전해보고 싶었어요. 회사에서 클래스를 여니까 이동할 필요도 없어서 편하게 참여할 수 있었어요. 다음 수업에는 더 많은 직원들이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레이싱타이어개발팀
이승준 사원

"새롭고 신선한 경험이네요. 그림을 그리는 동안 이런저런 생각을 비우게 돼서 그런지 그 자체만으로도 힐링이었어요. 좋은 시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품질보증팀
이명수 책임

"여러 도안 중에 바다를 선택했는데요. 고향인 부산을 떠올리면서 작품명을 '향수'로 정해봤어요."

특성평가팀
장재호 책임

"어렸을 때 미술학원 다녔던 기억으로 신청하게 됐어요. 그림을 그리는 동안 잡념도 사라지고 릴렉스 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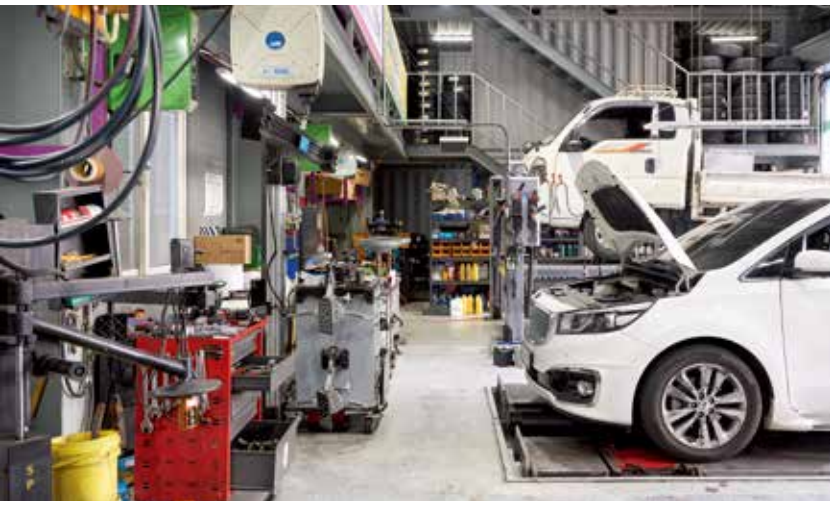
TIRE TECH 타이어테크 태평로점

최고와 완벽을 지향하는 일에 대한 묵직한 진심

남다른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남보다 특별해야 한다. 타이어테크 태평로점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뛰어난 기술력과 최고의 서비스를 경쟁력으로 삼는다. 30년 넘게 자동차 경정비 업계에서 일해온 김규환 점장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타이어가 아닌 신뢰와 믿음을 판매한다는 그의 신념은 전국에서 고객이 찾게 만든 원동력이 되었다.

STATION 1







단골 고객이 태평로점을 찾는 이유

타이어테크 태평로점은 김규환 점장의 팬을 자처하는 단골 고객이 많다. 서울, 강릉, 포항 등 지역을 가리지 않는다. 별도의 홍보 없이 입소문만으로 각지에서 고객들이 찾는다. 특히 고급 차량과 수입 차량을 소유한 고객이 주를 이룬다. 그의 실력과 서비스에 반해서다.

"넥센타이어 대리점을 운영하기 전 자동차 경정비 업계에서 33년 동안 일하면서 경정비에 대한 전문 지식과 기술력을 쌓았습니다. 제 경험과 노하우를 고객들에게 전하고 있는데, 자동차 경정비를 받은 고객들이 블로그나 SNS에 정비 사례를 자발적으로 올려 주시면서 먼 지역에서 찾는 고객들이 많아졌습니다."

태평로점은 2016년에 문을 열었다. 오픈 당시 김규환 점장이 가장 중점을 둔 것은 매장 규모였다. 고급 차량과 수입 차량의 고객 확보를 위해서 였다. 200평 규모의 'ㄱ'자 모양을 한 태평로점은 그가 직접 설계했을 만큼 애정을 듬뿍 쏟았다. 현재 태평로점은 김규한 점장과 두 명의 타이어 전문 엔지니어가 함께 일하고 있다. 대리점 운영 철칙은 '항상 한결같은 마음으로 고객을 응대하는 것'이다.

"뛰어난 기술력과 철저한 서비스 마인드를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한결같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희의 영업 전략입니다. 그래서 직원을 채용할 때 경력자는 최대한 지양하고 신입 직원을 뽑아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세심하게 가르칩니다. 저와 직원들의 마음과 손발이 잘 맞아야 고객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김규환 점장은 직원들과 경영에 관해서는 모든 것을 공유한다. 직원들의 정보력이 높아질수록 고객 응대력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PERFECT MASTER



태평로점의 베테랑 노트

1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정비 기술력

30년 넘게 타이어 및 자동차 경정비 업계에서 일해온 김규환 점장의 정비 기술력은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유명하다. 그는 신입 직원을 채용해 기술 전수를 이어나가며 태평로점의 기술 및 서비스 균일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타이어에 대한 완벽한 이해

신제품이 출시되면 차량에 장착 후 반드시 시승을 한 후 타이어의 특성과 장점을 이해한다. 타이어에 대한 완벽한 이해는 고객에게 신뢰와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3 고객의 차량을 내 차처럼 생각하는 마음

선입 선출, 실내 보관, 전용 비드 크림 사용, 정확한 휠 얼라인먼트 작업 등 차량이 매장에 입고돼 다시 나가는 순간까지 세심한 관리가 이어진다. 고객의 차량을 내 차처럼 여기는 마음 덕분이다.

TIRE TECH

VETERAN NOTE

인생 역전을 만들어준 넥센타이어! 내 삶의 동반자

오랜 세월 동안 타이어 및 자동차 경정비를 해온 만큼 김규환 점장에게는 잊지 못할 고객들의 이야기가 넘쳐난다. 타 브랜드의 매장에서 타이어를 교체하고 휠 얼라인먼트 정비까지 받은 고객은 해결되지 않는 차량 쏠림 현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다가 태평로점을 방문했다. 넥센타이어를 장착하고 휠 얼라인먼트 정비 후 고속도로 시운전까지 한 고객은 그를 향해 엄지를 세웠다. 그 고객은 "타이어는 역시 넥센!"이라며 지인들에게 넥센타이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1등 고객이 되었다. 노력한 만큼 고객에게 인정받았던 순간들은 차곡차곡 쌓여 김규환 점장에게 긍정의 에너지로 힘을 북돋는다.

김규환 점장에게 넥센타이어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개인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에 넥센타이어를 만나 위기를 극복하고 꿋꿋하게 일어설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제게 넥센타이어는 인생 역전입니다"라며 환하게 웃었다. 넥센타이어를 인생의 동반자로 여기면서 일에 애정과 열정을 다하는 이유다. 김규환 점장은 "넥센타이어의 발전적 미래와 비전을 함께하며 태평로점을 전국 최고의 대리점으로 만들어가겠다"는 힘찬 각오를 전했다.





▲
타이어테크 태평로점
지도 보러가기
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129-1
전화 053-423-6688

STATION

VOL 91

2023
SPRING

마곡에서 임직원 대상으로 진행된 추억의
뽑기 이벤트와 지구를 생각하며 업사이클링에 도전한
가족들의 에피소드가 담겼다. 또한 올해 첫 번째
임직원 참여형 사회공헌으로 차별과 편견을 없애는
다문화 인형 '소중이' 만들기의 후일담도 함께 만나보자.

오늘도 해피타임!
우리 가족 DIY
NEXEN CSR

STATION

2

오늘도 해피타임!

글. 편집실, 사진. 김정호



STATION 2

노는 게 제일 좋아! 친구들 모여라~

꽝 없는 추억의 뽑기 이벤트!











어린 시절 우리들의 아지트이자, 하루라도 들르지 않으면 괜스레 서운했던 문방구의 하이라이트는 '추억의 뽑기'였다. 100원의 행복으로 1등을 노렸던 종이 뽑기가 타임머신을 타고 마곡에 등장했다. 잠시 동심의 세계로 빠져든 넥센인들은 단짝 친구와 깔깔거리던 그 시절로 돌아간 듯했다. 여느 때와 다름없었던 점심시간이 풋풋한 즐거움으로 가득했던, 조금은 특별한 봄날의 오후였다.





기회는 단 한 번뿐?! 1등은 내 손에~

식당으로 향하는 길목에 떡 하니 자리 잡은 대형 뽑기판과 주사위가 시선을 사로잡았다. 도넛과 뻥튀기, 종합선물세트 등 추억의 간식거리와 레트로 스타일의 블루투스 스피커가 상품으로 등판했다. 낯선 이벤트에 쭈뼛대는 것도 잠시, 어느새 참여자들로 대기 줄이 길게 늘어섰다.

"주사위 던져서 나온 숫자만큼 뽑기를 할 수 있어요. 꽝 없는 추억의 뽑기하고 가세요."

사원부터 팀장, 임원까지 이 순간만큼은 모두가 천진난만한 아이의 얼굴을 하고 있다. 주사위의 숫자가 높게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높이 던지는가 하면, 팀원들의 응원에 힘입어 큰 소리로 기합을 넣는 참가자도 있어 웃음을 자아냈다. 평소 '열린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이현종 사장님의 등장에 일순간 뽑기판에 대한 집중도가 올라갔다. 꽝과 5등 도넛을 뽑고 머쓱해하는 사장님에게 심심한 위로의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잠시 동료가 아닌 친구의 모습으로 이벤트에 참여하며 춘곤증도 떨쳐내고, 하루의 활력을 찾은 넥센인들. 또 어느 날 깜짝 서프라이즈가 그들의 일상에 기분 좋은 노크를 해올지 기대해보자.



구조연구팀 손형욱 책임 & 구본영 선임

구 아재 개그 코드가 딱 맞아, 저의 웃음 버튼인 손형욱 책임님과 또 한 번 재미있는 시간이었어요. 나름 기대하며 뽑았는데 역시나 저는 똥손이었네요.

손 문방구 앞에서 잉어 모양 달고나를 뽑았던 기억이 나네요. 언제나 척하면 척 알아듣는 팀의 단짝 구본영 선임과 색다른 추억을 쌓았어요.









글로벌영업지원팀 김한결 사원 & 이혜준 사원
글로벌영업기획팀 서지혜 사원

서 처음 봤을 때부터 서로 친화력이 좋아서 금방 가까워진 삼인방이에요. 이제는 팀이 달라졌지만 여전히 점심은 같이 먹는 절친이랍니다. 동료들이랑 색다른 추억을 만들었어요~

김 제가 제일 먼저 주사위를 던졌는데 3회가 나온 데다 뽑아보니 2등이더라고요. 이 좋은 기운으로 다른 두 사람이 영향을 받은 것 같아서 내심 뿌듯합니다.

이 정말 김한결 사원님의 에너지 덕분인지 저도 3회가 나와서 좋은 선물 받아 가요. 어렸을 때 뽑기로 받았던 아폴로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불량식품은 왜 이렇게 맛있었던지.



구조연구팀 권현직 책임 & 패턴디자인연구팀 조진현 책임

조 함께 경력직으로 입사한 데다가 나이도 비슷하고 직급도 같아서 단짝이 된 권현직 책임이랑 손잡고(?) 이벤트 참여했습니다. 그의 탐구하는 모습에서 항상 많이 배워요. 어린 시절 뽑기 한번 하고 싶어서 문방구를 기웃거렸던 기억이 아스라이 떠오릅니다. 회사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문화혁신팀의 노고에도 감사를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엄마~ 나 1등 먹었어!!

영업지원팀 지원파트 김진식 수석

팀 전체가 같이 와서 참여했는데요. 많이 웃고 갑니다. 팀원들이 젊은 친구들이 많아서 밝고 열정적인 편인데, 뽑기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보기 좋네요. 잠깐이지만 어렸을 때 생각도 났어요. 앞으로는 팽이치기나 윷놀이 같은 것도 해보는 건 어떨까요?









OE한국영업팀 백승엽 사원 & 한국OE PM팀 신예정 사원

신 MZ세대도 공감할 수 있는 추억의 게임이었어요. 그리고 요즘 젊은 세대가 자주 가는 공간에서 이벤트 할 때도 뽑기가 많답니다. 꽤나 힘했어요! 선물 같은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백 업무 중에 갑작스러운 이벤트였는데요. 지루한 일상이 좀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20대 되고 나서는 친구들끼리 특별히 하는 게 없었는데, 잊고 있던 동심의 세계가 열리는 기회였어요.





전략기획팀 최현민 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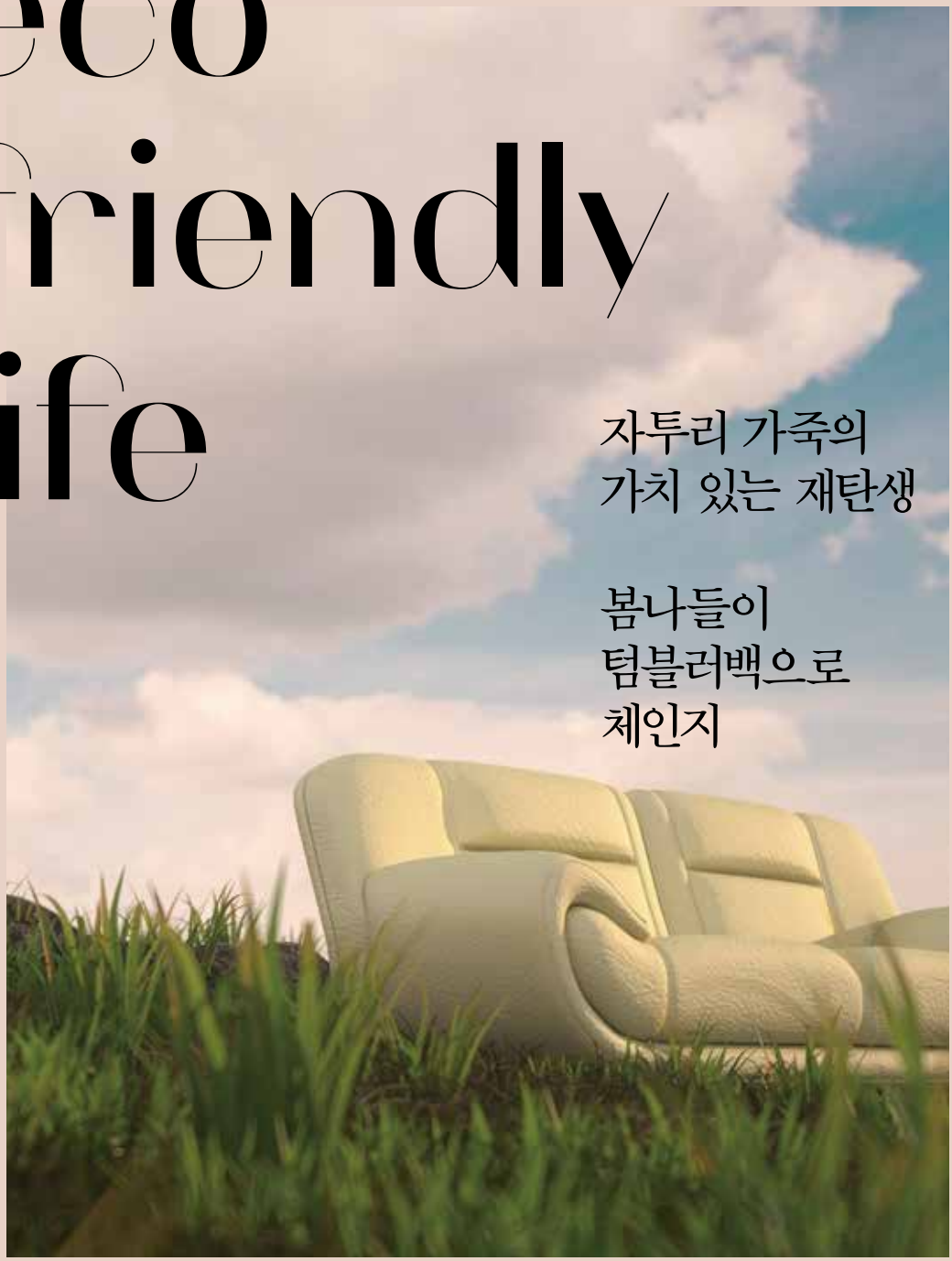
저는 원래도 뽑기만 하면 운이 좋은 편이에요. 주사위를 굴리고 뽑기를 집는데 왠지 1등이 당첨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블루투스 스피커를 떡하니 탔습니다. 또 1등 할 테니까 이런 이벤트 자주 열어주세요~





STATION 2

eco friendly life



자투리 가죽의 가치 있는 재탄생

봄나들이 텀블러백으로 체인지

해사로운 봄꽃을 맞으러 돗자리에 김밥까지 챙겼지만, 넥센인 가족들은 준비가 하나 더 남았다.
플라스틱 일회용 사용을 줄이기 위해 챙긴 텀블러를 담아 갈 아주 특별한 가방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소파를 제작하고 버려진 자투리 소가죽을 이용한 업사이클링 '텀블러백'을 손수 꿰매며 가족이 함께 엮어낸
이야기를 만나보자.

내일을 위한 유쾌한 재활용 놀이 시간

시간이 흐를수록 멋스러운 매력 때문에 비싼 값을 치르면서도 천연가죽 제품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다. 고가의 명품 악어 가방 하나 만드는 데 악어 세 마리가 희생된다. 그 안에 담긴 생명의 무게를 생각하면 가죽 제품을 소비하는 것이 쉽지 만은 않을 것이다. 이처럼 천연가죽 사용은 동물 학대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가죽의 부패를 막기 위해 쓰이는 독성이 강한 화학 약품과 염료는 환경 파괴의 원인이 되며 가축 사육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은 심각한 단계이다. 축산업은 대규모 토지 사용을 위해 산림 벌채를 자행하기 때문이다. 천연가죽의 대안으로 나온 인조가죽 역시 화학섬유로 만들기 때문에 썩는데 수백 년이 걸리며, 석탄과 석유 등의 화학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어 환경 오염을 유발한다.



자연친화적 소재를 사용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미 사용된 폐가죽을 적극적으로 재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버려진 것들에 다시금 쓰임을 입혀주는 일은 생명을 불어넣는 것과 진배없는 가치 있는 일이다. 넥센인 가족이 직접 만든 업사이클 텀블러백에 일회용 플라스틱 물병 대신 보온병과 리유저블컵을 담으며 자연스럽게 플라스틱 사용도 줄여보는 나비효과를 기대해본다.

이진섭 책임
CP품질검사팀

남은 자투리 가죽을 활용한 텀블러백 DIY 키트를 받아 아이와 함께 바느질도 하고 가죽 위에 그림도 그리면서 재미있게 만들었어요. 꽤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다 완성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지만 직접 경험하면서 아이가 재활용으로 쓰레기를 줄일 수 있고 환경 오염도 막을 수 있다고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환경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박다민 책임
ESG팀

매번 손에 이것저것 많이 들고 다니다가 물건을 여러 번 떨어뜨렸는데요. 텀블러 주머니란 아이템이 너무 유용할 것 같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자투리 가죽을 재활용한 주머니라니! 환경을 보호하는 활동에 참여한 거란 생각에 마음이 한껏 따뜻해졌습니다.
열심히 바느질을 하고 그림을 그리다 보니 금세 완성된 저의 텀블러 주머니가 정말 괜찮네요. 마음에 쏙 들어서 같이 사는 짝꿍에게 사진을 요리조리 많이 찍어 달라고 했습니다. ^^ 이번 주말 한강 피크닉 때 아이스 커피를 담은 텀블러를 주머니에 넣어서 양손 가볍게 가려고요.

김가현 선임
YP기업문화팀

평소 환경보호에 관심은 많았지만, 막상 실천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소파를 만들고 남은 가죽으로 에코텀블러백을 만들어 볼 수 있어서 뿌듯하고 재밌었어요. 만들어보니 예쁘기까지 하구요. 앞으로 외출할 때는 꼭 이 텀블러 백에 텀블러 휴대해서 가지고 가야겠어요~ 좋은 경험 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upcycle!





"반려견
물통 가방으로 변신
밍키야! 산책 가자~"



최원석 책임
영업지원팀

다른 분들은 텀블러 가방으로 만들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우리집 마스코트 '밍키' 맞춤으로 산책용 물통 가방을 만들어봤습니다. 밍키 물통하고 사이즈가 딱 맞더라고요! 나름 밍키의 특징을 잡아서 열심히 캐릭터를 그려봤습니다. 날씨가 이제 많이 따뜻해져서 등산이나 산책 갈 때마다 들고 나갑니다. 앞으로도 밍키 물통으로 자주 애용할 예정이에요. 매일 하던 산책이 업사이클링으로 조금 더 특별해질 것 같아요.

가죽 업사이클링 DIY 키트를 경험하고 싶다면?



아이들에게 깨끗한 지구를 남겨줄 수 있도록 한 뼘의 작은 가죽이라도 가치를 연구하는 브랜드 오운유. 사자와 빨간색을 좋아하며 디자이너인 엄마의 일에 관심이 많은 어린아이의 스케치북에서 시작된 오운유는 총 11명의 어린이 아티스트들과 협업하여 업사이클링 제품을 만든다. 버려진 천연가죽으로 텀블러백, 파우치, 카드케이스, 열쇠 고리 등 다양하게 만들어볼 수 있다. **오운유 https://ownu.co.kr/**

글, 사진. 유재훈 책임 문화혁신팀

STATION 2

차별과 편견을 없애는 다문화 인형 '소중이' 만들기





넥센타이어는 2023년 첫 번째 임직원 참여형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차별과 편견을 없애는 다문화 인형 '소중이' 만들기」를 실시하였다. 전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총 100명이 참여하였으며, 개인별로 온라인 신청을 통해 원하는 배송지로 키트를 받아 손수 제작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은 국내외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는 인형을 선물하는 비대면 핸즈온 캠페인으로 진행되었고, 완성된 키트는 일괄 반송하여 기관을 통해 전달된다.

매분기 진행할 때마다 참여율이 높아 임직원들 사이에서 접수 당일 오픈런(?) 하지 않으면 참여할 수 없다고 소문이 자자했는데, 이번 역시 첫날에 조기 마감되었다. 사내 커뮤니티 NEMO를 통해 참여 후기 이벤트도 시행하였는데, 자녀가 있는 임직원들은 아이들의 반응이 좋아 반송할 때 애먹었다는 재미난 에피소드를 남기기도 했다.

키트 구매를 통해 발생된 후원금은 저소득, 빈곤 아동 대상으로 다양하게 지원하는 기금으로 사용된다. 한 땀 한 땀 임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정성스레 만든 인형이 아이들에게 잘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STATION

VOL 91

2023
SPRING

모든 것이 새롭게 깨어나는 봄!
여전히 동면 중인 우리들의 감성에 파장을 일으킬 문화 소식과 함께 영화부터 게임까지, 엔터테인먼트를 꿈꾸는 모빌리티의 세계가 준비됐다. 또한 삶의 질을 한 뼘 더 키워줄 버라이어티한 구독의 세계는 물론 건강한 봄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알레르기 질환 가이드를 시작한다.

컬처 가이드
미래참견시점
핫템 모아보기
365 건강백서
오피스 솔루션
NEWS
함께해요!

STATION

3

글. 편집실

knock! knock!

잠자고 있던 영감을 깨워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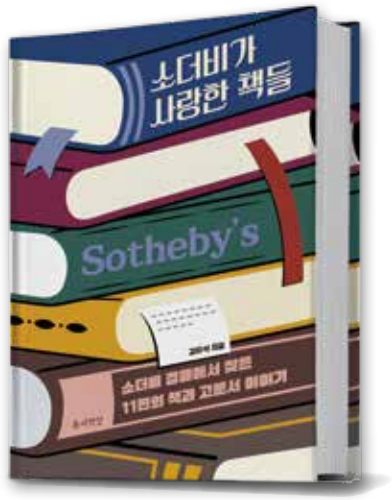
놀이 있어요~

개구리가 운 게 언제인데, 아직도 웅크리고 동면 상태인가요. 신선한 자극이 필요한 당신을 위해 준비한 통통 튀는 콘텐츠가 오감을 깨울 준비를 마쳤어요. 지금부터 집중! 일상에 나비효과를 일으킬 일생일대의 작품을 만날 수도 있으니까요.

STATION 3



BOOK



소더비가 사랑한 책들

김유석 지음 / 틈새책방 엮음

세계 최고 경매 회사 소더비(Sotheby's)에서 거래된 책과 고문서에 얽힌 이야기다. 경매하면 고가의 미술품을 떠올리기 쉽지만 소더비 경매의 근본이자 진가는 책과 고문서다. 300년 가까운 소더비가 찾아낸 11편의 이야기! 동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유일무이한 원본에 숨겨진 비밀, 과학자가 아닌 연금술사이자 신학자의 면모를 밝혀낸 뉴턴의 불에 탄 노트, 약 500억 원의 경매가를 기록한 세계에서 가장 비싼 문서, 미국의 〈헌법〉 사본 등은 호기심을 극대화한다. 소더비가 주목한 11개의 경매는 인류가 만들어 낸 기록 문화가 어떻게 세상과 연결돼 놀라운 가치를 탄생시켰는지 흥미롭게 보여 준다.

#박학다식_하고싶어? #500억짜리_문서 #믿고보는_소더비



이야기를 횡단하는 호모 픽투스의 모험

조너선 갓셜 지음 / 위즈덤하우스 엮음

인간은 이야기하는 동물이자 이야기에 중독된 '호모 픽투스'라고 주장하는 조너선 갓셜. 그에 따르면 이야기는 부작용이 있는 '필수적 독'이며 스토리텔링 본성이 오늘날 인류를 파멸로 몰아가고 있다고 한다. 고대 아테네의 황금시대와 트로이목마, 도시괴담과 음모론, 넷플릭스와 〈해리포터〉까지 그의 이야기는 종횡무진하며 스토리텔링의 이로움과 해로움을 조목조목 설명한다. 기존에 생각지도 못했던 포인트에서 펼치는 색다른 이야기에 우리는 또 한번 중독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이야기 모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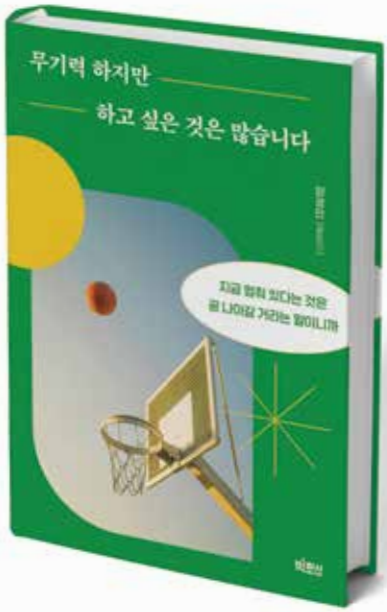
#이야기가_이렇게_위험했어?
#음모론에서_괴담까지!
#당신도_이야기중독자

무기력하지만 하고 싶은 것은 많습니다

양경민(글토크) 지음 / 빅피시 엮음

"순간의 설렘들에 집중하면 어느 순간 무기력을 떨쳐낸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라며 20만 명의 마음을 울린, 양경민 작가의 두 번째 책. 무기력의 계절을 잘 보내고 삶에 봄 같은 생기를 불러일으키는 방법을 따뜻하고 담백하게 풀어놓는다. 무기력하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삶에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무기력이 바람처럼 지나가도록, 삶에 오래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면 된다. 무엇보다 자신을 믿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내 삶을 사랑하는 단단한 마음이다.

#20만명이_공감한_글토크
#무기력아_안녕
#오늘도_지지않아



EXHIBITION & PERFORMANCE

차차차원이 다다른 차원

LG아트센터 서울 / 4월 15일 ~ 4월 23일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허문 '관객 참여형' 공연이다. 이승과 저승 사이, 천년에 한번 열리는 차차차원의 틈으로 소환된 네 명의 영혼들이 있다. 자신이 지나온 삶을 추억할 수 있는 행복한 장례식, 떠나는 이와 남은 이들이 행복하게 헤어질 수 있는 '차차차원의 낯선 틈'에 초대된 관객들! 관객은 사전에 전달받은 노래와 안무 가이드를 따라 함께 춤추고 노래하면서 배우와 소통하며 공연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다. 또한 '송스루(Song Through, 대사 없이 노래로만 전개하는 공연)' 형식으로 대사 없이 7곡의 뮤지컬 음악으로만 전개해 작품의 몰입감도 높였다.

#준비물은_호기심 #막춤과_내적댄스
#흥겨운_장례식장





뮤지엄 오브 일루전

해운대 영화의전당 비프힐 1층 / 11월까지(예정)

뉴욕, 파리, 밀라노 등 전 세계 50여 개 대도시에서 선보이고 있는 착시 아트 '뮤지엄 오브 일루전'이 부산에서도 열렸다. 눈으로만 보는 단순한 전시에서 벗어나 두뇌를 깨우는 작품들이 가득하다. 직접 만져보고 체험해보는 공간이 많아서 남녀노소 누구나 어렵지 않게 작품을 즐길 수 있다. 착시를 이용한 다양한 포토존 덕분에 관람이 끝난 후, 가족이나 친구들과 독특한 사진으로 대화의 꽃을 피울 수 있다는 또 다른 재미가 있다.

#착시의_세계
#속을_준비_완료
#언제 끝났지?

MOVIE & OT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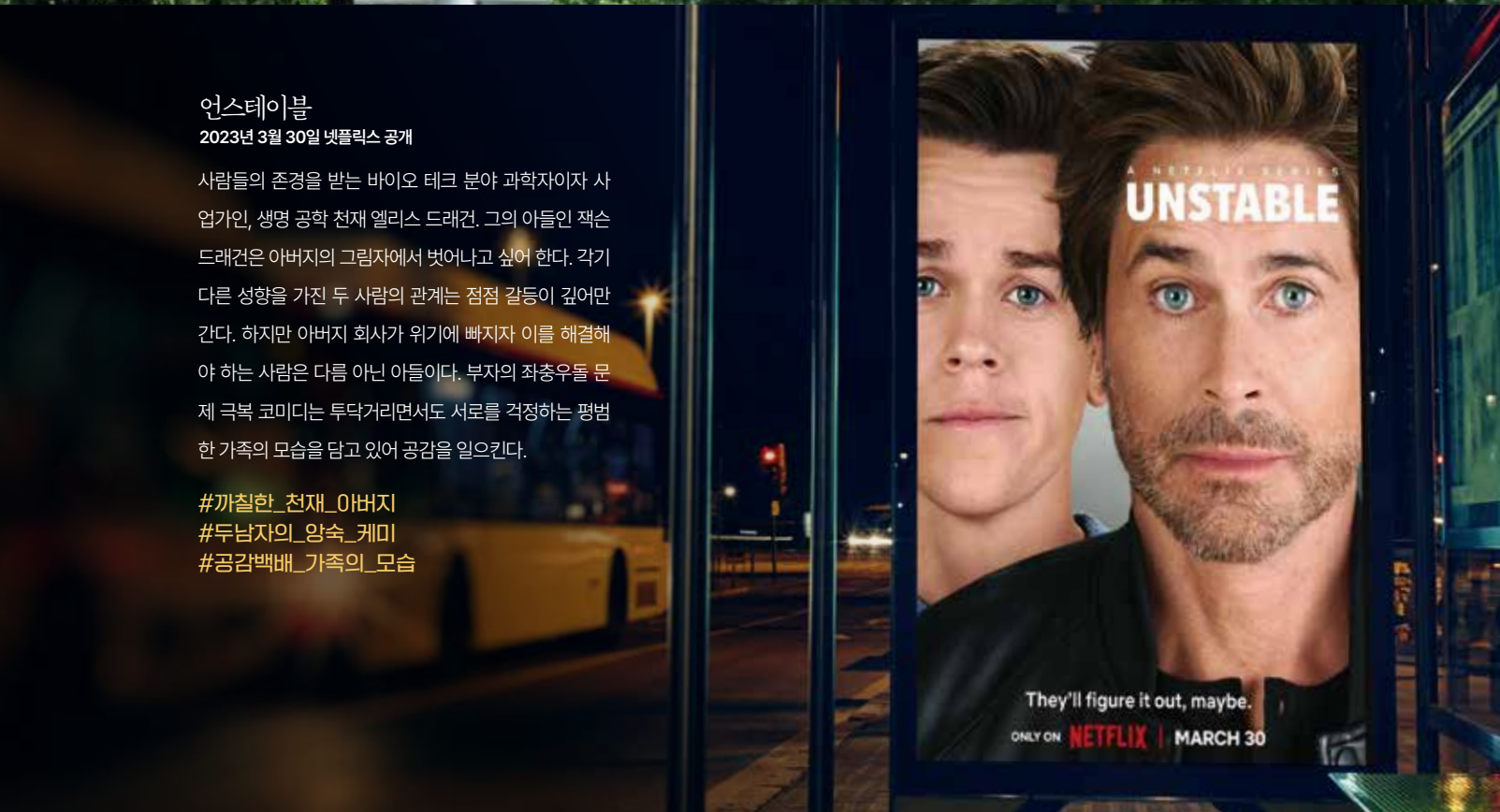


오토라는 남자

2023년 3월 29일 극장 개봉

2013년 번역 출간 당시 18개월 연속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던 화제작 〈오베라는 남자〉를 영화한 작품이다. 40년 동안 함께한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주인공 오토는 인생을 마감하고자 한다. 하지만 새로 이사 온 이웃 때문에 매번 죽으려고 했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다. 이웃이 새로운 가족이 되면서 인생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오토. 오랜만에 만나는 톰 행크스표 코미디가 편안하면서도 긴 여운을 준다. 톰 행크스의 젊은 시절 역할을 실제 그의 아들인 배우 트루먼 행크스가 맡아 화제가 됐다.

#관심이란_기적
#당신의_삶은_흑백인가요
#톰행크스표_코미디



언스테이블

2023년 3월 30일 넷플릭스 공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바이오 테크 분야 과학자이자 사업가인, 생명 공학 천재 엘리스 드래건. 그의 아들인 잭슨 드래건은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 각기 다른 성향을 가진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갈등이 깊어만 간다. 하지만 아버지 회사가 위기에 빠지자 이를 해결해야 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아들이다. 부자의 좌충우돌 문제 극복 코미디는 투닥거리면서도 서로를 걱정하는 평범한 가족의 모습을 담고 있어 공감을 일으킨다.

#까칠한_천재_아버지
#두남자의_앙숙_케미
#공감백배_가족의_모습

글. 정구민 국민대학교 전자공학부 교수



ENTERTA

모빌리티가 꿈꾸는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CES 2023에서 '차량 내 경험(In-Car Experience)'은 핵심 키워드가 됐다. 생활 공간으로 진화하는 자동차의 실내 공간은 '최고의 메타버스 기기'라는 비전과 같이 움직이는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CES 2023은 스마트홈의 공간이 스마트카로 옮겨오는 트렌드를 잘 보여주었다. 또한, 스마트홈, 스마트카, 스마트오피스, 메타버스를 잇는 공간 연속성의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기도 했다.

STATION 3

In——Car

PLAT



INMENT

CES 2023에서는 BMW의 새로운 차량 내 디스플레이 기술과 서비스, 현대모비스·콘티넨탈·비스티온·LG디스플레이 등 여러 주요 부품사들의 차량 내 멀티미디어 기술 혁신상 수상, 차량 내 디스플레이와 오디오 기술의 진화, 차량 내 서비스를 위한 진화 등 다양한 관련 기술과 서비스가 전시되었다. 최근 자율주행과 전기차의 진화에 따라서 멀티미디어 기술과 서비스의 발전이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차세대 시장과 기술의 진화에서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는 CES 2023의 차량 내 멀티미디어 서비스에 대해서 정리해 본다.

Experience

FORM



Digital Emotional Experience



콘셉트카, 새로운 멀티미디어를 선보이다

BMW의 콘셉트카 아이 비전 디(i Vision Dee)는 CES 2023에서 최고의 화제가 되었다. 이 콘셉트카는 디지털 감성 경험(Digital Emotional Experience, DEE)이라는 DEE의 약어처럼, 자율주행 시대의 새로운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강조했다. 아이 비전 디는 차량 색상 변화라는 먼 미래의 기술과 함께 차량 내 디스플레이 서비스 및 새로운 전기자율차 플랫폼이라는 2025년 상용화 예정인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이 중에서 차량 색상 변화는 미래 비전일 뿐이지만, 차량 내 디스플레이 서비스는 곧 상용화할 예정이라는 점이 주목할 부분이다.

BMW 콘셉트카의 혼합현실 슬라이더(Mixed Reality Slider)는 자율주행 단계에 따라 4단계로 구동된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 단계가 4, 5단계로 올라가면 전면 유리창이 커다란 디스플레이로 변하면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BMW는 관련해서 어드밴스드 헤드업 디스플레이(Advanced Head Up Display) 기술을 2025년부터 상용화할 계획이다.

이 디스플레이 기술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투명 디스플레이 기술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선보이고 있는 투명 디스플레이가 아닌 유리창을 불투명하게 만들고 헤드업 디스플레이처럼 일종의 프로젝터를 활용하는 기술이다. 창문의 투명도를 조절하는 이스라엘 가우지(Gauzy)의 기술에 프로젝터 관련 기술을 응용했다. 서비스나 플랫폼이 부품 기술을 좌우하는 CES의 트렌드도 관련되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스타트업 디폰(Difon)도 가우지와 비슷한 응용을 선보였다. 창문을 불투명하게 만들고 영화를 즐기는 시연을 선보이기도 했다. 참고로 2019 프랑크푸르트모터쇼에서는 우리나라의 딥하이가 창문을 불투명하게 만드는 기술을 전시한 바 있다.

콘티넨탈의 시닉 뷰 디스플레이(Scenic View Display) 기술도 비슷한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전면 유리창의 아랫부분을 검게 코딩한 후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기술처럼 프로젝터를 적용하게 된다. 역시 디스플레이 기술을 우회하면서 시장을 넓혀가는 전략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BMW의 새로운 디스플레이 기술과 서비스, 출처: BMW



버라이어티해진 멀티미디어 기술

CES 2023에서는 현대모비스, LG디스플레이, 비스티온 등의 차량 내 디스플레이 기술과 함께 벤츠, 디락, LG디스플레이 등의 오디오 기술도 전시되었다. 현대모비스는 스위블 디스플레이로 혁신상을 수상했다. 자율주행이나 수동주행에 맞춰 디스플레이의 크기가 조정되는 기술이다. LG디스플레이, 콘티넨탈, 비스티온 등 주요 관련 업체들도 차세대 차량용 디스플레이를 강조하면서 앞으로의 시장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참고로 BMW는 CES 2022에서 선보였던 씨어터스크린을 7시리즈에서 본격적으로 양산하면서 화제가 된 바 있다.

차량 내 오디오 기술도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벤츠는 신형 전기차 EQE에서 15개의 스피커를 이용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전시했다. 특히, 15개의 스피커를 통한 깨끗한 음질을 강조했다. 현재, 벤츠 마이바흐에는 31개의 스피커, 현대 제네시스에는 16개의 스피커 기반의 프리미엄 오디오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스웨덴의 디락과 LG 디스플레이도 관련 기술을 전시했다. 디락은 19개의 스피커에서 제공되는 프리미엄 오디오 기술을 선보였다. 디락은 관련 기술을 여러 자동차사와 협력 중이다. LG디스플레이는 스피커가 필요없이 얇은 판을 진동시켜서 소리를 내는 기술로 혁신상을 수상했다.





현대모비스의 스위블 디스플레이와
콘티넨탈의 시닉뷰디스플레이, 출처: 각 사



벤츠와 디락의
프리미엄 오디오 기술
출처: 벤츠

Metaverse



발레오의 차량용 메타버스 서비스 시연



자동차는 최고의 메타버스 기기

주요 자동차사들과 부품사들의 미래 비전에서는 '자동차는 최고의 메타버스 기기'를 목표로 하는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가 전시되었다.

아우디는 2019년 이머시브 인카 엔터테인먼트 기술을 선보인 바 있다. 차량을 움직여 주면서 영화에 맞춘 콘텐츠를 제공해 주는 기술이다. 관련해서 폭스바겐 관련 회사인 카리아드는 차량 창문, VR 기기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미래 게임과 멀티미디어 서비스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다.

프랑스 발레오는 VR 기기를 통한 공간의 연결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동 중에도 가상 공간에서 회의를 즐길 수 있고, 다양한 메타버스 서비스를 즐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차량 내에 카메라가 많이 설치된다면 저렴한 VR 기기로도 동작 인식을 통한 메타버스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7년 구글은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플랫폼을 선보였다. 기존의 안드로이드 플랫폼은 스마트폰 전용으로 자동차사가 차량용으로 바꿔서 써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위한 전용 플랫폼이다. 애플도 카플레이를 강화하는 동시에 2026년으로 미뤄진 애플카에서 서비스와 콘텐츠 중심의 차량을 선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차량용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는 자동차사의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스마트홈과 스마트폰의 경험을 차량에서 제공하면서 여기에서 더 나아가 새로운 메타버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성장해 나갈 관련 시장에서 우리나라 업체들의 많은 활약을 기대해 본다.

everyday

STATION 3

일상을 큐레이팅하다!

구독 전성시대

선택 장애에 시달리던 사람도,
언제나 시간에 쫓겼던 타임푸어족도
걱정은 이제 그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최고의 아이템을 알아서 추천해주는
구독 서비스가 구원자로 나섰기 때문이다.
도시락은 물론 영양제, 수건,
분리수거까지 정기 배송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
일상의 품격을 바꿀 핫한
큐레이팅 구독을 만나보자.
(구독 가격 변동 가능)



제로웨이스트를 위한 착한 재료가 왔어요

YES US

못생겨도 맛만 좋아~ '예스어스'

매년 산지에서 폐기되는 5조 원 규모의 못난이 농산물을 직접 수급해 배송하는 플랫폼 '예스어스'! 유통과정을 줄였기 때문에 소비자는 20% 저렴하게 채소를 구입할 수 있다. 매주 혹은 격주로 5~10종의 채소·과일을 3~5kg씩 소분해서 배송한다. 최근에는 고객의 소비 패턴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맞춤형 농산물을 제시하고 조리법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회당 10,000~ 25,000원 (1.5~3kg 내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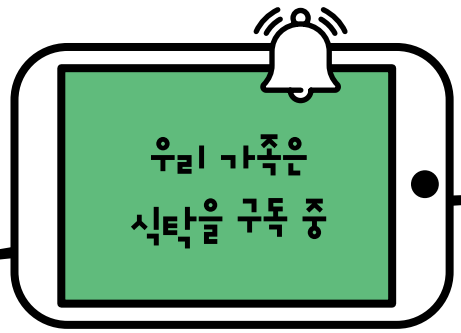
MONTHLY EGGS

행복한 닭이 낳은 달걀 '월간계란'

갓 낳은 계란을 문 앞까지 배송하는 구독 플랫폼 월간계란은 1m² 당 9마리 닭을 방사 형태로 키우는 곳에서 알을 수거한다. 당일 새벽에 수거된 달걀은 다음날 아침에 받아볼 수 있으며, 제주도와 같은 섬의 경우 이틀이 소요된다.
사육환경을 개선한 곳에서 자란 닭의 달걀이기 때문에 월간계란 상품은 깼을 때 노른자는 탱글탱글하며 흰자와 노른자의 구분이 뚜렷하고 퍼지지 않는다.

초란 기준 60알 23,000원

curation!





다이어터를 위한 샐러드 구독

SWEET BALANCE

'스윗밸런스'

1~3개월 단위로 자체 큐레이팅한 샐러드 식단을 배송하는 스윗밸런스! 샐러드 구독의 경우 종류가 다양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는 반면 스윗밸런스는 130종의 샐러드 식단을 갖추고 있어 메뉴가 질릴 걱정이 없다. 드레싱 포함 200kcal대로 낮은 열량이 포인트! 지역에 따라 새벽 배송도 가능

개당 4,900~6,900원

애주가를 위한 월마다 한 병의 행복



술담회

MZ, 전통주에 빠지다 '술담화'

'술담화'는 매월 큐레이션한 전통주를 랜덤박스로 보내주는 전통주 구독 서비스다. 전국 1,200개 이상 양조장의 술 중에서 소믈리에가 고객 취향에 맞게 추천한 상품을 배송해 준다. 전통주 종류는 총 2,000여 개이르며 직접 구매할 때보다 12%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월 39,000원 전통주 3병

육아 전쟁 중인 맞벌이 부부를 위한 식탁

Avec papa

초보 부모님,
수제 이유식 배달왔어요 '아베크파파'

이유식을 시작할 때 아이를 위한 영양과 식감을 다 챙기기란 쉽지 않다. 초보 부모를 위한 이유식 구독 서비스 아베크파파는 쌀 없는 프랑스식 수제 이유식을 선보이고 있다. 과체중과 소아당뇨 예방을 위해 GI지수(혈당지수)가 높은 쌀보다는 탄수화물이 풍부한 야채와 구황작물을 사용한 이유식이다. 아기의 월령에 따라 단계별 세트를 간편하게 선택 가능하다.

1팩당 5,700원
1주일에 2회 배송



반려동물을 위한 간 케어 간식 배달이오

Withpetbio

간 때문이야~ '위드펫바이오'

반려동물용 신약개발 기업인 위드펫바이오는 반려동물 메디푸드 '간튼튼' 정기구독 서비스를 시작했다. 수의사로 구성된 연구진이 직접 개발한 반려동물 전용 간 케어 간식이다. 하루 한포 츄르 형태로 되어 있어 야외에서도 먹이기 편하다. 2주, 한 달 등 원하는 일정에 맞춰 정기 배송 받을 수 있다. 간튼튼 정기구독 서비스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위드펫몰'에서 신청할 수 있다.

1박스 29,900원
(5회차 적용시 15% 할인)

타임푸어족 집안일을 구독 중

청소 끝! 홈클리닝 서비스

청소연구소

'청소연구소'

맞벌이 부부나 출장이 잦은 사람에게 요긴한 홈크리닝 서비스 '청소연구소'는 주 1회, 격주 등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청소를 대신해주는 청소 도우미를 연결해 준다. 모든 도우미를 직접 교육하고 사후관리까지 하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다. 한 명의 매니저가 방문해 주방, 화장실, 방, 거실 각 영역별로 표준화된 청소 가이드에 따라 서비스를 시행한다.

(평수와 시간에 따라 상이)

쓰레기 정리도 구독하세요

분리수GO

'분리수GO'

'분리수GO'는 비대면 생활 폐기물 처리 서비스이다. 고객이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등을 문 앞에 두면 매니저가 분리수거부터 배출까지 모두 해결해주는 구독 서비스다. 또한 초기 재활용 폐기물 선별 방식을 새롭게 해 재활용 자원을 재생원료로 구현해 낸다.

월 2회 수거 9,600원

빨래 지옥에서 탈출

LaundryGo

'런드리고'

'런드리고'는 생활 빨래, 드라이클리닝, 와이셔츠, 이불·운동화 세탁은 물론 명품, 일반 의류를 포함한 옷 수선 서비스까지 제공 중인 비대면 모바일 세탁 서비스다. 앱으로 세탁물 수거를 신청하고 전용 빨래 수거함 '런드렛'에 빨래를 담아 문 앞에 두면, 세탁한 뒤 다시 집 앞에 갖다준다. 베이비 케어옵션을 선택하면 아기 전용 세제로 아기 빨래도 가능하다.





매달 세계 작가의
작품이 **배달** 중

pinzle.

'핀즐'

나만의 인테리어를 완성하는데 그림만큼 좋은 아이템도 없다. 정기 그림 구독 서비스인 핀즐은 세계 곳곳에 포진한 작가들의 작품을 매달 집 앞으로 배송해 준다. 매월 대형 그림과 매거진을 택배로 받아볼 수 있다. 해당 작가의 이야기와 그림 설명이 함께 배송돼, 문화적 소양을 누릴 수 있다.

6개월 구독 153,000원

폼생폼사
멋을 구독 중

디자이너 의상을 구독한다?

faav

'패브'

몇 번 입고 싶증 난 아이템들이 옷장에 쌓여 있다면 의류 대여 서비스 '패브(faav)'를 구독해보자. 디자이너 브랜드의 의류와 잡화를 한 달에 총 6벌까지 대여가 가능하다. 특별한 날에 유용하게 옷을 대여할 수 있으며, 새로 시도해보고 싶은 옷을 스타일링 해보기도 쉽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대로 반납하면 된다.

월 구독료 60,000원대

피부에 맞는 성분이 배달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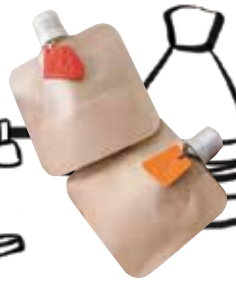
TOUN28

'톤28'

톤28은 피부의 특성을 분석해 28일 주기로 화장품을 신선하게 배송해주는 맞춤 화장품 구독 서비스이다. 구독을 시작하면 피부 상태를 측정해주는 가이드가 찾아와 상담을 진행하고(비대면으로도 가능) 10일 안에 피부에 맞는 화장품을 배송해준다. 날씨와 계절을 반영하는 것은 물론 제철 천연 성분을 사용하고 제조 과정 또한 비건이다.

월 정기 구독 39,000원~(1부위 기준)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꽃잎이?! 또 다시 찾아온 알레르기 비상

allergy

포근해진 햇살과 따뜻한 봄바람 덕분에 나들이 가기 딱 좋은 계절! 하지만 오랜만의 외출 후에 찾아온 알 수 없는 가려움과 코 막힘, 눈 염증 등으로 고생할 수 있다. 일교차로 인한 면역력 저하에, 봄철 불청객 같은 꽃가루와 황사, 미세먼지 등이 알레르기 질환을 일으킨 것이다. 비슷한 듯 조금씩 다른 알레르기 증세와 예방법은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보자.

감기랑 헷갈려?

알레르기 비염



구강에서 후두까지 발생하는 대표적인 알레르기 질환으로 많게는 인구의 30%까지 나타날 정도로 흔한 질병이다. 대기 환경이 점차 오염되면서 환자는 증가하고 발병 연령은 더 낮아지고 있다. 외부 물질이 코에 들어오면 가려움증이 발생해 재채기를 하면서 맑은 콧물이 흘러나오다가 코막힘이 생기는 것이 증세 과정이다. 코 막힘 정도에 따라 비용종, 만성 부비동염 등 다른 비강 내 질환이 동반될 수 있다. 가려움증은 코 외에도 눈, 목, 귀 등에도 생길 수 있다.

증세 코 막힘, 발작적인 연속 재채기, 계속 흐르는 맑은 콧물, 코 및 눈 주변 가려움

원인 먼지와 곰팡이, 온도 변화, 매연, 꽃가루, 담배 연기, 화장품, 스트레스 등

예방법

- ✔ 반드시 마스크 쓰기
- ✔ 진드기 제거를 위해 침구류 세탁할 시 60도 이상 뜨거운 물로!
- ✔ 진드기 번식 억제를 위해 실내 온도는 20도, 습도는 45% 이하로 유지!
- ✔ 먼지와 곰팡이 없도록 환기, 단! 꽃가루 유행 계절에는 오후 3시까지 열지 말기

궁금 talk talk ...

감기와 알레르기 비염 어떻게 구분해요?

맑은 콧물과 발작성 재채기, 코 막힘, 코 가려움증 중에 두 가지 이상이 하루 1시간 이상 나타나면 감기가 아니라 알레르기 비염을 의심해야 돼요. 미취학 아동의 경우 이런 증상을 2주 이상 보이면 감기라고 넘기지 마세요. 알레르기 비염이나 천식일 수도 있으니까요.

처방받은 항히스타민제 먹고 감기약 먹으면 안돼요?

항히스타민 성분이 들어간 감기약은 중복 투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알레르기성 비염에 효과가 있는 항히스타민은 복용할 때 체크해야 할 것들이 좀 있는데요.

항히스타민제 먹을 때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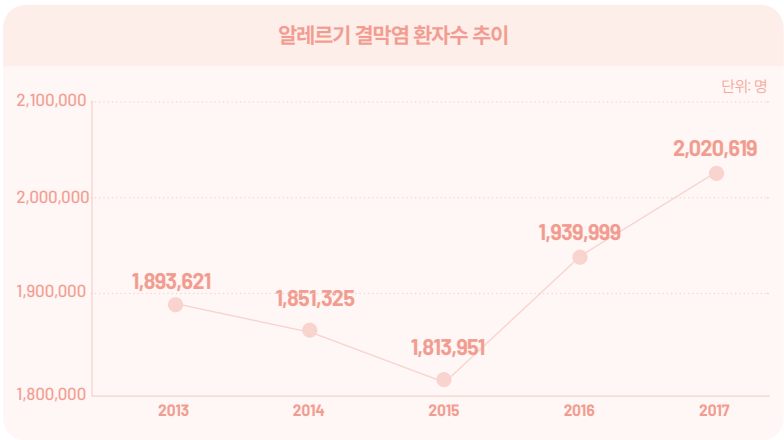
졸릴 수 있기 때문에 운전이나 기계 조작은 피해야 되고요. 술이나 중추신경계 억제 약물과 함께 복용해도 안돼요. 또한 임산부나 수유 중인 경우, 어린이와 노약자 등은 사용 전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빨개진 눈,

알레르기 결막염

원인이 사람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꽃가루, 집먼지 진드기, 황사, 동물 털 등이 결막에 접촉하면서 일으키는 질환이 '알레르기 결막염'이다. 주로 꽃가루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봄이나 초여름에 환자 발생이 많아진다. 기후 위기로 기온이 상승해 꽃가루가 날리는 기간이 길어지고 미세먼지 등이 기승을 부리면서 알레르기 결막염 환자도 늘어나고 있다.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증세 가려움, 충혈, 이물감, 눈곱, 안구 통증, 눈물 흘림, 눈부심, 시력 저하

원인 꽃가루, 황사, 진드기, 동물 털, 집먼지 등

예방법

- ✔ 손으로 눈 만지지 않기
- ✔ 콘텍트 렌즈 사용하지 않기
- ✔ 가려움증 있을 때 냉 찜질하기
- ✔ 봄철 외출 삼가기



외출하고 싶다면?

기상청
'꽃가루 농도 위험지수'
확인하기!

쌕쌕 호흡 곤란,
알레르기 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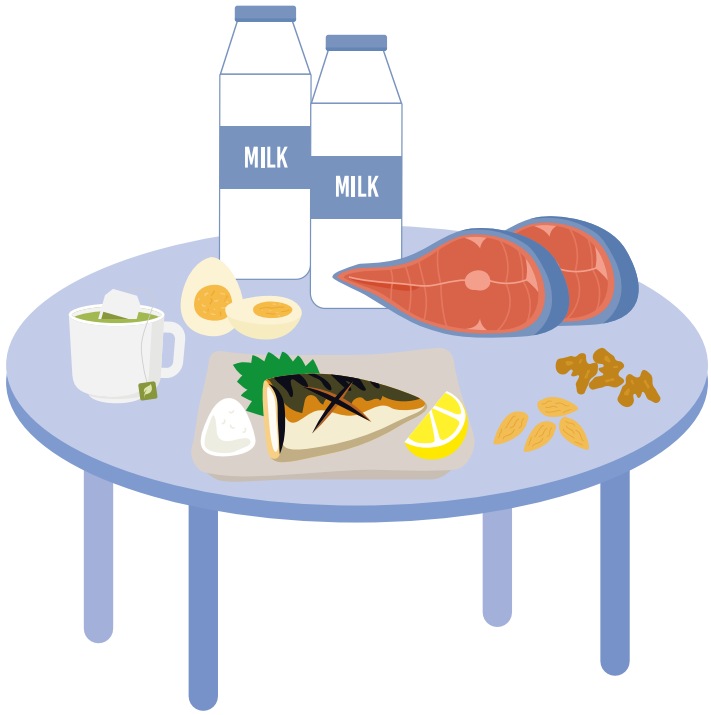
알레르기 천식은 공기를 흡입하면서 들어온 외부 알레르기 물질이 원인이 돼,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기도 점막에 염증이 생겨 붓게 되면 기관지가 좁아져 쌕쌕거리는 호흡 소리를 내게 된다. 특히 야간이나 새벽, 찬바람에 노출됐을 때 증세가 심해지며, 감기와 함께 동반되면 증상이 악화된다. 기침 감기와 혼동하지 않도록 증상을 꼼꼼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증세 기도 수축으로 숨이 차거나 쌕쌕 거리는 호흡 소리, 기침, 가래, 호흡 곤란

원인 집먼지 진드기, 꽃가루, 곰팡이, 벌레 부스러기 등

예방법

- ✔ 물을 많이 마셔서 건조하지 않게 하기
- ✔ 봄철 일교차에 주의하기
- ✔ 실내 환기 및 정화로 공기 깨끗이 하기



봄철 알레르기에 효과적인 면역력 강화 식탁

녹차 항산화 효과가 있어, 염증이 심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우유와 달걀, 연어 비타민D가 풍부해 면역 기능을 강화해 준다.

고등어와 호두, 아몬드 오메가3 지방산이 함유돼 있어 염증 치료에 좋다.

출처: 질병관리청

봄 나들이 중 응급상황! 이렇게 대처하세요~

귀에 벌레가 들어갔어요

벌레가 살아있을 경우에는 전등을 비춰 벌레가 스스로 나오도록 유도하면 된다. 그래도 벌레가 나오지 않는다면 식용유나 베이비 오일을 한 방울 떨어뜨려 벌레를 죽인 후 꺼내도록 하며 너무 깊숙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바로 병원을 찾는다.

풀에 스쳤는데 가려워요

풀에 닿아 피부가 가렵거나 붉어지는 경우에는 깨끗이 씻어주고 가려움과 발진을 진정시켜줄 수 있도록 얼음으로 찜질을 해준다.

따끔! 벌에 쏘였어요

세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손톱 대신 세척한 카드 등의 모서리를 이용해 살살 밀어가며 벌침을 제거한다.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비눗물로 상처를 세척한 뒤 얼음 찜질로 부종을 가라 앉히면 된다.

MBTI 맞춤형 고민상담소
극과 극! 오해하지 맙시다!



MZ세대가 즐겨한다는 레이블링 게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특정 유형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레이블링의 대표주자인 'MBTI'는 어느덧 한 사람의 상징적 암호가 되었다. 팀빌딩 프로그램으로도 애용되는 이유는 서로의 유형을 이해함으로써 업무 효율이나 팀워크에 개선 포인트를 짚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동료의 MBTI를 떠올리며, 그간의 오해 아닌 오해를 풀어보도록 하자.



E는 일단 경험하고 이해하는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처리와 의사 결정이 빠르다는 강점이 있으며,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유관부서와의 소통에도 적극적인 편이다. 외부의 자극에 대해 덜 민감한 편이라 업무에 대한 평가나 비판에 대해서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성향을 갖고 있어 솔직하게 피드백을 주는 것이 일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다. 단, 경험이 앞서다 보니 업무처리에 대한 디테일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보완할 필요가 있다.

반면 I는 이해한 다음에 경험하려고 한다. 그런 면 때문에 전략적이고 논리적이란 인상을 준다. 업무를 처리할 때 신중한 편이며, 말보다는 글로 생각을 전달하는데 탁월하다. 좁고 깊은 인간관계를 선호하다 보니 여럿이 모여 왁자지껄하는 회식 자리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다수와 일상적으로 나누는 가벼운 소재에 대해 의미가 없다고 여기기도 한다.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나 갑작스러운 업무에 외향형보다 당황하는 편이지, 아이디어가 부족하다거나 창의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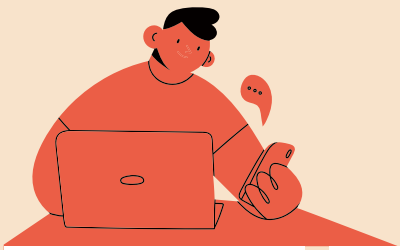


T형은 객관적이고 비판적이며 업무 중심 타입이다. 진실과 사실에 주로 관심을 가지며 '맞다, 틀리다'의 판단을 선호하고 논리적, 분석적이란 인상을 준다. 데이터에 기초한 업무가 적성에 맞는다는 생각을 할 수 있으며 문제가 생겼을 때 제3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누군가의 고민을 들었을 때도 '그때는 이렇게 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이런 것들을 해봐'라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편이다. 그러다 보니 위로와 공감이 필요한 상황에서 오해를 만들 수도 있다.

F형은 '일' 보다는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편이다. '맞다, 틀리다' 보다 '좋다, 나쁘다'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 원리, 원칙보다는 그 일이 자신에게 주는 의미와 영향에 더 가치를 둔다. 본능적으로 남을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고민상담을 해오는 동료에게 감정적으로 공감하는 태도를 보이며 의사결정을 내릴 때도 관계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다. 상대방에 대한 감정적인 공감이 끝나면 해결법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이성적인 것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것만은 제발!!

MBTI 유형별 참을 수 없는 '순간'



ESTJ
업무적으로 버벅거리는 모습에 질색 팔색

ESTP
조용히 있으라고 하면 좌절

ESFJ
답정너처럼 말하면 속 터짐

ESFP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안됨

ENTP
주변 정리하라고 하면 난감



ENFP
무관심하면 제대로 삐짐

ENTJ
공감해달라하면 서로 상처

ENFJ
상처주는 말 하면 거센 후폭풍

ISFP
하기 싫은 거 시키면 못볼 꼴 봄

ISFJ
잘난 척하면서 말하면 등짝 때림

ISTP
미리미리 하라고 하면 의욕 저하

ISTJ
말하다 중간에 끊기면 빈정 상함



INFP
낯선 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라고 하면 땀 뻘뻘

INTP
무논리로 말싸움하면 너다운

INTJ
이래라 저래라 하면 의욕 상실



INFJ
사람 많은 곳에 갑자기 오라하면 손절

HELLO NEXEN NEWS 1

next century ventures × Automotus



STATION 3

넥센 그룹 CVC, 美 교통 관리 및 분석 스타트업 '오토모투스' 투자

- 도로변 주·정차 관리 및 교통정보 분석 스타트업에 투자

- 공회전 줄여 이산화탄소 배출량 절감해 ESG 측면에도 기여

넥센타이어의 벤처캐피탈 자회사인 넥스트 센츄리 벤처스(Next Century Ventures, 이하 NCV)가 미국 교통 관리 및 분석 스타트업 '오토모투스(Automotus)'에 투자한다고 3월 7일 밝혔다.

NCV는 넥센타이어가 지난 2021년 ㈜넥센과의 공동 투자를 통해 국내 타이어 업계 최초로 실리콘밸리에 설립한 벤처캐피탈로 도심항공교통, 자율주행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 스타트업에 투자를 진행해오고 있다.

이번 투자 기업인 '오토모투스'는 2017년 미국에 설립되었으며, 카메라 기반 AI를 활용하여 연석 주변(curbside)의 교통 및 주·정차 등의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 분석하고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스타트업이다.

'오토모투스'는 배송차량, 공유차량 등의 증가로 도심 연석 주변 혼잡에 따른 교통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차량 배기가스 감축에도 효과적이어서 ESG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오토모투스'는 현재 미국의 보스턴, 마이애미, 피츠버그 등 주요 15개 도시에서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지방 정부, 지역사회 및 모빌리티 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또한, 미국 내 공항과 연계하여 혼잡을 야기하는 공유 및 호출 차량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최근 캐나다 진출을 필두로 유럽 및 해외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NCV 관계자는 "이번 투자는 단순히 성장성이 좋은 기업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NCV가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 생태계 구성을 준비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좋은 기술을 가지고 사회에 기여하는 건강한 모빌리티 기업을 찾아 미래를 준비하는 투자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NCV는 2021년 첫 투자 대상으로 도심 항공 교통(UAM·Urban Air Mobility) 영역 중 무인비행장치 교통관리(UTM·Uncrewed aircraft system Traffic Management)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스타트업 'ANRA 테크놀로지스'를 선택했다.

이어, 작년에는 자율주행 대중교통 및 공공 셔틀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으로 일반 차량에 독자적으로 개발한 주행 시스템을 적용하고 공공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이 모빌리티'에 투자했다.

HELLO NEXEN NEWS 2



넥센타이어, LPGA 노무라 하루 프로 후원 협약
LPGA 3회 우승 기록한 노무라 하루 선수 후원하며 브랜드 알려

넥센타이어가 LPGA 노무라 하루 프로를 후원하며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3월 21일 밝혔다.

노무라 하루(일본) 선수는 2011년 LPGA 투어 데뷔를 시작으로 2016년 'ISPS 한다 호주 여자 오픈' 우승, '스윙스커츠 LPGA 클래식' 우승, 2017년 '발룬티어 오브 아메리카 텍사스 슛아웃' 우승 등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노무라 하루는 한국인 어머니와 일본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고등학교 때까지 한국에서 생활했다. 한국 이름은 문민경이다.

후원 협약식은 서울 마곡에 위치한 넥센중앙연구소인 '더넥센유니버시티'에서 강호찬 부회장, 이현종 사장, 노무라 하루 선수 및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노무라 하루 선수는 2023년 한 해 동안 유니폼 및 모자에 넥센타이어 브랜드를 노출하며 전 세계를 누비게 된다.

넥센타이어는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노무라 하루 프로가 최고의 컨디션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며, "홍예은 선수에 이어, 또 한 명의 LPGA 선수 후원을 통해 글로벌 고객들에게 더욱 친숙한 브랜드로 다가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넥센타이어는 지난 2020년도부터 LPGA 홍예은 선수를 후원해 오고 있으며, 2013년부터 '넥센·세인트나인 마스터즈' 대회를 후원해 오고 있다. 또한, 고객 초청 대상 골프 대회를 개최하는 등 골프 산업 저변 확대를 위해 기여해오고 있다.

HELLO NEXEN MAGAZINE

참여해주세요

〈헬로우 넥센〉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사연을
보내주세요.



/
사내 특별한
소식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

참여 및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헬로우 넥센〉
구독 및 구독 정보 변경을
원하시는 사내외 독자는
넥센타이어 홈페이지의
사보 게시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보 담당자
문화혁신팀 김희진 책임
hellonexen@nexentire.com

〈헬로우 넥센〉 봄호 이벤트 참여

〈헬로우 넥센〉
웹진 이벤트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

하단의 QR 코드 스캔하기

▼

이벤트 참여하기

▼

인적사항 기입

▼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기프티콘 증정)

당첨자 확인과 상품 발송을 위해
성함, 연락처를
반드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NEXEN TIRE
OFFICIAL PARTNER OF
MANCHESTER CITY FOOTBALL CLUB
NEXEN TIRE
NEXEN TIRE
we got you

N'FERA supreme S

흡음재 & AI 테크놀로지 적용으로 극대화 된 승차감

마모되어도 최대한 유지되는 주행 성능

고성능 / 고하중 차량 최적화

더욱 좋아진 연비 효율성까지



NEXEN TIRE

we got you